


“확 달라진 행복한 교육 웹진을 만나보세요”



- ✓ 업로드 기사를 디스플레이 규격에 상관없이 최적화된 화면으로 즐겨요~
- ✓ 2003년부터 최근호까지 16년간의 '행복한 교육'을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 ✓ 목차 보기 기능으로 기사 확인이 훨씬 쉬워졌어요~
- ✓ 통합 검색 서비스를 구축,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요~

<http://happyedu.moe.go.kr>

지금 바로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 행복한 교육

행복한 교육 2019년 2월

특별기획\_미래형 학교 공간 혁신



Vol. 439. 2019. 2.

특별기획\_미래형 학교 공간 혁신  
정책 간담회\_ 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안



# CONTENTS

FEBRUARY 2019 Vol. 439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02 특별기획

미래형 학교 공간 혁신

04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 '학교'

07 학교 공간 혁신 사례

14 건축가의 눈으로 보는 학교 공간

16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 20 세계의 교육 변화

노르웨이 학교사례로 보는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본질



## 현장이야기

22 꿈이 영그는 현장 제10회 방과후학교 대상 우수학교사례  
"네 안의 끼와 꿈, 활짝 피어나라!"

28 삶과 교육 경북 기북초등학교 오지섭 군과 임용수 특수교사

32 이런 수업 어때요 김남준 서울불암초등학교 수석교사  
수학, 보고 만지고 경험하라!

36 아하! 진로체험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40 나눔 실천하는 사람들 동행과 행동

42 명예기자 리포트 멈춘 심장 다시 뛰게 한  
'지하철 영웅' 선생님 외

## 정책이야기

48 정책N전망 "이제는 안전의식도 점검해야 합니다"

50 카드뉴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외

52 정책 간담회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안

58 이슈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공영형·협동조합형 유치원에서 답 찾다

61 대학교육 '대학 도서관' 무한 변신 시대

64 꽃 피는 교육자치 전남/광주/세종/부산



## 정보이야기

68 학급운영노트 새 학기, 꼭 챙겨야 할 일곱 가지

70 아이의 다락방 화 잘 내는 성진

72 이야기 인문학 대한민국의 '민국'은 어디서 왔는가

74 일상의 심포 역사의 주름이 살아 움직이는 땅, 부여

78 뉴스브리핑

80 행복 게시판

## 표지이야기

서울 남산 2호와 3호 터널 사이 남산자락에 위치한 서울용암초등학교(교장 박영주)는 숲속학교를 모티브로 교육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였다. 운동장 한편에는 목구조의 숲속공방이 자리하고 있다. 메이커교육의 산실인 숲속공방은 바깥 풍경을 집안으로 품는 한옥처럼 남산 숲을 한가득 담아낸다. 아이들이 발길이 머물 수 있도록 교육공간을 바꿨을 뿐인데, 어느덧 학교는 머물고 싶은 특별한 공간이 됐다. 사람이 공간을 만들지만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이런 때 어울리는 말이다.



# 미래형 학교 공간 혁신

1.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 '학교'
2. 학교 공간 혁신 사례
  - ① 서울용암초등학교
  - ② 서울 창덕여자중학교
  - ③ 경기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3. 건축가의 눈으로 보는 학교 공간
4.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일자형의 긴 복도, 사각형의 교실, 학교와 바깥 세계를 구분하는 담장 등. 그동안 학교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공간구조를 가져왔다. 시대가 변하고 교육과정도 변하고 학생들의 의식구조와 생활태도가 바뀌었지만 교육공간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없었다. 이제 학교 공간은 학생들의 삶의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 우리 교육은 이미 학습과 심, 그리고 놀이가 어우러지는 미래지향적 교육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는 창의적 감성적인 생활공간으로서의 교실, 학교 공간의 의미를 살펴보고 학교 공간 혁신을 일군 우수사례를 통해 더디지만 변화하고 있는 학교의 모습과 교육부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소개한다.



숲속 도서관을 연상시키는 아코브 공간

교실 현관

온돌마루

서울용암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



#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곳 ‘학교’

## 획일적 구조의 획일적 건축물 ‘학교’ 학교 공간이 달라지니 학교 문화가 달라졌다 학교시설 환경 개선, 공간에 마음을 담자

‘창의적인 공간이 창의적인 사람을 만든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간의 의미는 단순한 시설적인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그 공간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활동을 하며, 또 어떤 문화가 그 속에 있는지를 모두 포함한 공간의 의미일 것이다.

방학을 맞아 통영을 다녀왔다. 언덕 위 찻집에서 내려다본 도시 풍경은 아름다웠다. ‘저기 저 곳은 학교다.’ 학교 건물은 누구나 금방 알아볼 수 있다. 그동안 학교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공간구조를 가져왔다. 시대가 변하고 교육과정이 변하고 학생들의 의식구조와 생활태도가 바뀌었지만 교육공간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없었다. 이제 학교 공간은 학생들의 삶의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 우리 교육은 이미 학습과 습, 그리고 놀이가 어우러지는 미래지향적 교육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넓은 복도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어룡초등학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공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에는 문화 시설이나 놀이 공간이 전혀 없이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다. 현재는 전체 38학급에 900여 명의 학생과 90여 명의 교직원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어룡초는 열린교육 바람이 한참 불던 2004년에 개교했다. 그래서인지 다른 학교에 비해 교실과 복도의 넓이가 1.5배나 넓게 지

어졌다. 복도와 복도가 만나는 곳에는 교실 한 칸 크기의 큰 공간이 층층마다 5곳

어룡초에 부임하고 1년 동안, 이렇게 넓은 공간이나 복도에서 어떤 교육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심지어는 노는 아이들도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생활지도 베테랑 선생님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넓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학교 공간 활용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4학년 학생들이 ‘행복한 어룡동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프로젝트 수업을 했다. 행복한 어룡동을 만들기 위해 광산구청장님을 모시고,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제안하는 수업이었다. ‘사유지를 사서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세요.’, ‘학교에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저녁에 길이 어두우니 가로등을 밝게 해 주세요.’ 등등. 이 수업이 계기가 되어 광산구청의 연계로 서울에 있는 벤처기부회사인 c-program ‘배움의 공간 프로젝트’를 만나게 되었

1. 2. 3. 광주어룡초 4층에 마련된 ‘꿈끼 동아리 공간’ 이곳에서 아이들은 각종 경연대회를 비롯해, 댄스연습, 독서토론 등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한다.



다. 6개월간 ‘배움의 공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교 공간 사용자들이 공간 사용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관찰하기(공간사용자 관찰하기)-상상하기(인사이트 투어)-만들기(프로토타입)-시공의 4단계로 진행된 ‘배움의 공간 프로젝트’ 첫 단계는 ‘관찰하기’였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고 가장 많이 바뀌게 되었다. 학교에서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학생이 학생을, 학생이 선생님을, 선생님이 학생을 한 달 정도 관찰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룹으로 보였다. 활동적으로 노는 남자아이들, 정적으로 앉아서 노는 아이들, 몰려다니며 화장실에서 군것질하며 수다를 떠는 여자아이들 등등.

다음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가슴(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무던히도 추웠던 겨울, 넓고 차가운 복도바닥에 앉아서 핸드폰 게임을 하며 방과 후 수업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어떤 아이는 창가 너머 삭막한 공장지붕을 바라보며 벽에 기대 서 있었다.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했다. 학교는 아이들에

게 학습의 공간이면서 삶의 공간, 힐링의 공간이어야 했는데, 아이들을 위해 학교는 아무것도 배려하지 않고 있었다.

### 공간을 아이들에게 돌려주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찾아 보았다. 차가운 복도에 앉아 방과 후 수업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 강당에 높이 쌓아둔 매트를 가져다 복도 한쪽에 깔아 놓아보았다. 아이들이 그쪽으로 몰려와서 눕기도 하고, 누워서 책을 읽기도 하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었다. 창가에 기대어 사색하는 아이를 위해서는 창고에 쌓아둔 컴퓨터 책상과 의자를 꺼내어 햇빛 드는 창가에 배치하고 예쁜 꽃도 놓아주었다. 활동적인 남자아이들을 위해서는 개교할 때 사서 비닐도 채 벗기지 않고 새것 상태로 창고에 그대로 방치해둔 탁구대를 꺼내어 넓은 빈 공간에 놓아주었다. 학교 이곳저곳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돌려주었다.

아이들을 위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도 많이 있었다. 그랬더니 학교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고 노는 소리가 떠들썩하게 들려왔다.





너무도 행복해했다. 그래서 느낀 것이 ‘학교 공간 사업이 꼭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학교 공간에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오고 싶고, 더 머물고 싶은 곳 ‘학교’**

학교는 ‘오고 싶고, 더 머물고 싶은 곳’이어야 한다.

학교 어딘가에는 아이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 곳에 가면 친구들이 있고, 하고 싶은 무엇이 있고, 그곳에 가면 내가 몰입할 수 있는 뭔가 ‘꺼리’가 있는 곳. ‘그런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

그래서 지난해에는 아이들과 함께 4층 공간에 ‘꿈·끼 동아리 공간’을 만들었다. 댄스 연습, 독서 토론, 보드게임, 메이커 공간 등 다양한 동아리부서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다.

4.5. “교실을 아이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교실 활용과 교실 배치도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곳에서 학생회 주관으로 매일 중간놀이 시간에 ‘장기 자랑 경연대회’를 열었다. 매일 3~4팀이 장기 자랑 발표를 하고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그런 곳이 되었다. 학교 공간이 바뀌니까 학교 문화도 달라져 갔다.

학교 공간 재구성 사업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 공간 속에서 주체적인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것을 보았다.

지금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교실 공간’에 주목하며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는 곳이 교실이기 때문에 교실 활용과 교실 배치도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왜 모든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만 공부해야 하는지?’, ‘왜 교실 정면만 바라보고 수업해야 하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고, 교실 공간의 주인을 아이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잘 해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공간 혁신은 또 다른 이름의 ‘교육 혁신’**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곳이 ‘학교’이다.

그래서 학교는 ‘오고 싶고, 더 머물고 싶은 곳’이어야 하며, 집처럼 안락하면서도 쉽이 있는 힐링의 공간이어야 한다. 학교 공간의 변화는 학교 문화를 바꾸고 다양한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혁신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무척이나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공간 재구성 사업을 단순히 물리적 시설이나 공간 개선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교육가족들과 머리를 맞대고 학교, 교실 공간을 아이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2

**학교 공간 혁신 사례① 서울용암초등학교  
서울형 작은학교모델, 공간 넘어 ‘교육 혁신’**

서울 남산 2호와 3호 터널 사이 남산자락에 위치한 서울용암초등학교(교장 박영주)는 전교생 174명의 서울형 작은학교 모델학교이다. 도심공동화로 나타난 ‘작은학교’에 대한 고민은 우리 미래학교의 모습으로, 서울용암초는 통폐합 위기 앞에서 공간 혁신을 통해 작은학교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박영주 교장은 “남산공원 내에 있는 학교라는 데서 모티브를 얻어 학교 공간을 숲속학교로 꾸몄다.”며 “가정과 같이 편안하면서도 숲속에 온 듯 숲 향기가 물씬 풍기는 공간이 탄생하면서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가 됐다.”고 말한다. 학교 공간의 변화로 2017년 24명이던 신입생이 2018년에는 3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에도 입학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용암초는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는 모토로 미래교육 공간을 디자인하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건축가가 수시로 만나 아이디어를 모았고 저학년 교실, 화장실, 숲속공방,

다문화실(세미실) 공간 4곳을 변화시켰다.

**꿈을 담은 교실**

용암초는 1,2학년 교실 4칸을 아이들의 안정과 성장에 맞춰 교육과정과 연계한 놀이 중심 교실 공간으로 꾸몄다. 건축학교 6차시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생각을 교실 공간 속에 녹여냈다.

교실과 복도 사이에 있는 접이식 패널벽을 이용하여 기존에 없던 교실 현관, 독서 및 거실 공간으로 구현하였다. 편백나무와 소나무 향기가 교실 가득 퍼지면서 아이들에게 편안한 자세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휴식과 독서를 위한 알코브 공간은 마치 숲속의 작은 도서관을 연상시킨다. 교실 후면은 자석판을 활용한 창의적 놀이학습 공간으로 탄생했다. 교실공간이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어 1학년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변석원(1학년) 학생은 “책 읽는 공간을 제일 좋아한다.”며 “쉬는 시간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집에서처럼 바닥에 누워 책을 읽기도 한다.”고 말한다.

◀ ‘숲속의 작은 도서관’을 연상시키는 교실  
▼ 교실과 복도 사이의 접이식 패널벽







▲출입구 방향을 변경해 환하면서도 편안한 공간으로 꾸민 화장실



▲학생들의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 화장실

### 꾸미고 꿈꾸는 화장실

창문이 없고 어두워 아이들이 싫어하는 공간이었다는 ‘화장실’은 갤러리 카페로 재탄생했다. 먼저, 출입구의 방향을 바꿔 남, 여 화장실 모두 창문이 있는 구조로 바꿈으로써 화장실이 환해졌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화장실 벽과 문(큐비클)에 넣어 학생들의 만족감을 높였다. 또 칙칙했던 화장실에 의자와 꽃을 넣어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었다. 화장실 벤치에 앉아 창을 바라보면, 남산타워가 한눈에 들어온다.



### 꿈꾸는 숲속공방



▲목구조의 숲속공방. 나무벽과 나무지붕 사이로 남산의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다.

서울용암초 운동장 한편에는 조금 특별한 공간이 있다. 목공과 도예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목구조로 만든 숲속공방이 그곳이다. 메이커교육의 산실인 이곳은 나무벽과 나무지붕 사이에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공방 안에서 남산의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다. 바깥 풍경을 집안으로 품는 한옥처럼 공방 안은 남산 숲을 담아내고 있다. 이곳에서 목공예교실, 도예교실을 비롯해 지역사회를 위한 학교평생교육 목공방 ‘마실’을 운영하고 있다.

김다은(5학년)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도 이곳에서 목공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다.”며 “나무 냄새도 너무 좋고 창문을 통해 남산 보는 재미도 있다.”고 설명한다.



▲숲속공방의 야경(제공=조호건축)



▲꿀벌학교를 모티브로 제작된 세미실의 재미있는 책걸상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 세계로 미래로! ‘세미실’

서울용암초는 전교생의 25%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로 20개국의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고 있다. 세미실은 이런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으로 다문화이해교육·세계시민교육과 중도입국학생의 한국어교육을 하는 다문화교실이다. 정형화된 딱딱한 책걸상이 아닌 친환경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지관(종이기둥)과 나무상판으로 구성된 꿀벌의 벌집모양 책걸상은 재미와 창의성, 호기심을 유발하는 교실로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공간이다.

박영주 교장은 “꿀벌학교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되었으며, 다양한 방법의 재배치를 통해 사고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글로벌 리더의 공간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공간의 변화는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공간을 구성하면서 ‘함께’라는 집단지성의 효과를 알게 되었으며,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배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확대되었다. 또한 학교평생교육 ‘마실’의 운영으로 학교가 학교에만 머물지 않고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22



# 학교 공간 혁신 사례② 서울 창덕여자중학교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균형을 이룬 미래학교 “공간은 제3의 선생님”

구한말 격변의 현장인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서울 창덕여자중학교(교장 유인숙)는 2015년부터 서울특별시 유일의 미래학교 연구학교로서 ‘삶을 중심에 둔 융합교육’을 목표로 수년간 교육과정 및 평가, 공간구성, 학교문화 등에서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미래학교 공교육 모델을 만들어 오고 있다.

미래연구부 이은상 교사는 “공간은 학습환경이며, 학습환경은 제3의 선생님”이라며 “모든 공간은 언제 어디서나 학생 배움 중심으로 협력·네트워크와 융합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균형을 추구하는 미래학교의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때문에 학교 공간 구성구석 의미 없는 공간은 단 한곳도 찾아볼 수 없다. 창덕여중 1층 중앙현관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균형을 추구하는 미래학교의 철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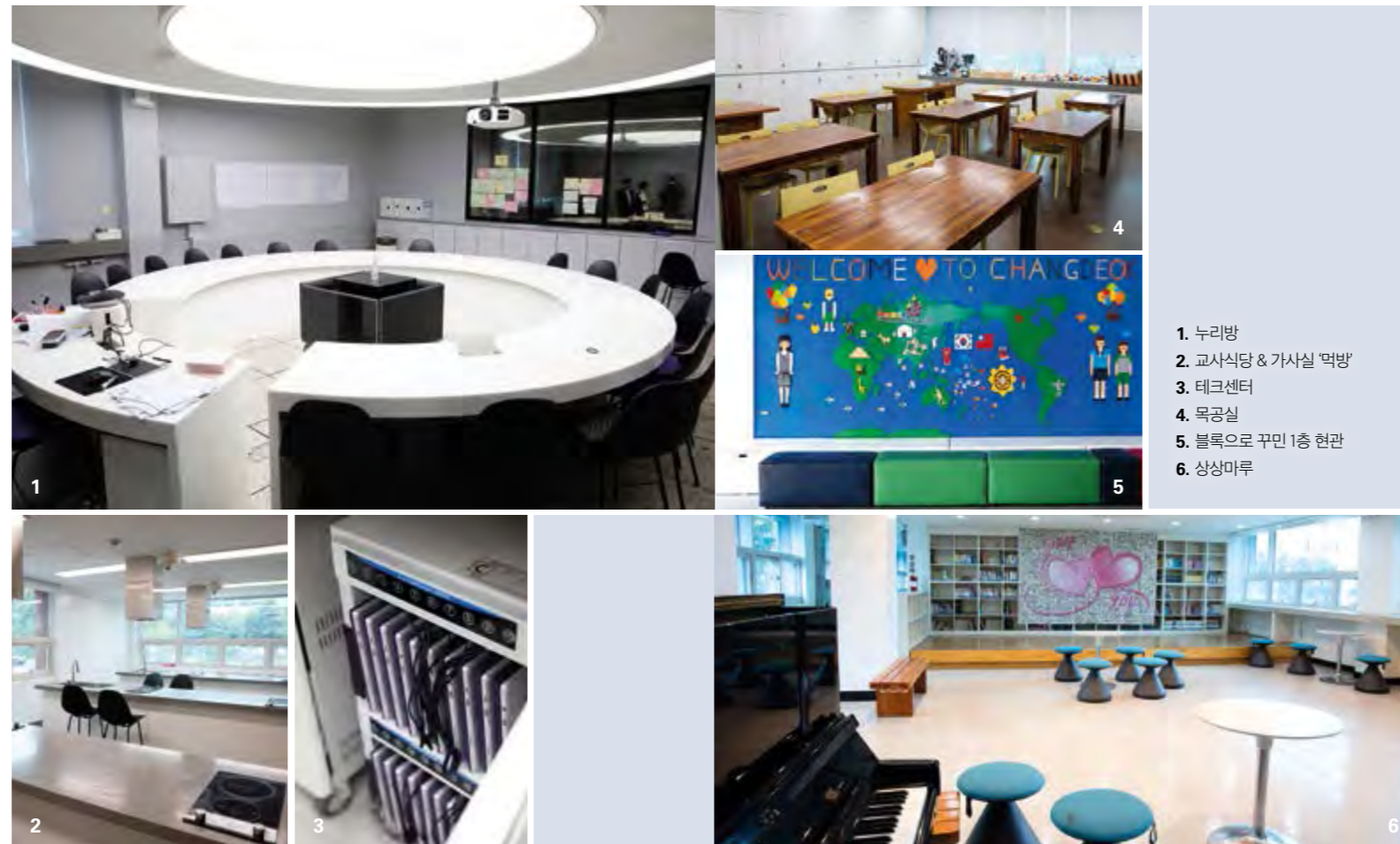
모든 공간은 학생 중심으로 스배우는 공간 스표현하는 공간 스나누는 공간 스즐기는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마저도 언제나 유연하게 남나들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 모든 전자기기 보관하는 ‘테크센터’

테크센터는 약 260대의 태블릿 PC를 충전, 관리, 대여하는 공간이다. 수업방법에 따라 대여가 가능하도록 20대, 10대 충전함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으며, 교수학습에 대한 지식을 갖춘 테크매니저가 상주하면서 교실수업에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테크센터에는 태블릿 PC외에도 360카메라, VR, 스마트폰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교사가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해 기기 대여를 받을 수 있다.

## 층별 마루, 삶과 배움이 하나다

각 층별 홈페이지에는 인성마루, 상상마루, 사랑마루가 있다. 이름을 들으면 층수를 유추할 수 있도록 이름을 지었다. 학생들의 생활공간이며 편안히 즐기는 공간이다. 온돌마루와 서가가 있어 학생들은 마루에서 편하게 앉아 이야기를



1. 누리방
2. 교사식당 & 가사실 '먹방'
3. 테크센터
4. 목공실
5. 블록으로 꾸민 1층 현관
6. 상상마루

나누고,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인성마루에는 자전거 등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있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이 지나면 교과교실의 확장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모둠활동 시, 교실에서 모둠활동을 하는 동시에 마루에서는 오디오 녹음을 할 수도 있고, 신체활동 중심의 활동을 할 수도 있다.

## 누리방,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간

누리방은 이전에 컴퓨터실이었으나 교내 어디에서나 태블릿 PC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재구조화가 이뤄진 공간이다. 원형 테이블의 특성을 활용하여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며 수업하는 것이 가능하다. 융합수학 등에 사용되는 공간이며, 학생들이 발표할 수 있는 활동이 늘었고 전보다 수

렴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 스튜디오와 소극장, 표현과 활동을 장려하는 공간

스튜디오와 소극장은 2015년 만들어진 공간. 소극장은 대부분 면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고 한쪽에 3단 계단이 있고 측면에는 거울이 설치되어 있다. 네모난 교실과 책걸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뮤지컬 수업도 하며 연극반, 댄스반 동아리 학생들의 연습공간이 되기도 한다. 중간에 무대장치를 위한 암막 커튼이 2개 있어 조별 활동을 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스튜디오는 방음시설이 되어 있고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교내 인터넷 방송이 가능하고 수업 또는 활동을 위한 촬영도 스튜디오에서 한다. 현재 음악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밴드반 동아리는 악기를 내부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서 동아리 연습실로도 사용된다. 이 공간은 학급 캠프 시 음악, 노래, 춤, 발표 등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간이다. 방음도 되어 있고 음향 장비도 많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2단 계단이 있어서 즉석 공연을 보기도 편리하다.

## 먹방, 교사와 학생이 함께 쓰는 공간

이전에는 교직원용 식당이었다. 점심시간에만 사용되는 활용도가 한정된 공간이었다. 하지만 2층 기술가정실을 목공실 용도로 리모델링하면서 바로 아래층에 있는 식당에 주목하게 되었다. 식당과 조리공간은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용 조리 실습대와 불박이 냉장고 오븐 등을 설치하였다.

먹방이 만들어진 후, 가정 수업시간에 요리 실습을 하고, 학생들이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와 무로 김장을 담그고 하고 방과후 요리경연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요리교실처럼 구성된 실습조리대와 식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탁 및 인테리어를 나무 재질로 하고, 조명도 노란색으로 바꾸어 이전보다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되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사용하고 수업과 생활이 공존하는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다. ②

# 학교 공간 혁신 사례③ 경기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네모나고 각진 교실은 이젠 옛말 설계 과정부터 학생 참여로 공간 혁신 중

**Q 학교에서 가장 싫은 공간이 어디야?**  
복도 옆 반 친구 기다릴 때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재미없어.

**Q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작품 등으로 꾸미면 어때? 바닥이고 천장이고 네모난 타일밖에 없으니까.

경기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교장 김학식) 학교 공간 혁신은 아이들이 주도한다. 일명 YIFS(Yangjeong Institute of Future School) 프로젝트. 학교 건물 중축을 앞두고 공간의 주 사용자인 학생들을 우선 고려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미래학교 공간을 구축 중이다.

## 학생 참여 공간 혁신 중... 매달 건축가와의 만남

지난 11월부터 아이들은 공간 혁신을 위한 ‘드림팀’을 꾸렸다. 1~2학년 20여 명의 희망 학생들 가운데, 학교 공간에 대한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을 조사할 리서치 팀과 건축·공간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을 주축으로 디자인 팀이 구성됐다.

리서치 팀은 먼저, 사전 교육의 일환으로 인터뷰 기법과 질문지를 만들고 공감에 기반한 제품 제작과 서비스 개발 사례를 조사했다. 이후, 2~3인이 한 조가 돼 재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분석하고, 단국대 SW디자인융합센터를 방문해 공간워크숍도 가졌다. 디자인 팀은 희망 공간의 이미지 의견을 조합하고, 이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드로잉해 공간 모형을 창작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매달 한두 차례 건축가와 만나 각 팀의 프로젝트 결과물을 서로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 1학년 지소영

학생은 “예기치 못한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 공감도 하고, 우리 스스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도 생겼다.”고 했다. 무엇보다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데 아이들의 기대가 크다. “학교 공간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다.”고 아이들은 입을 모은다. 2학년 윤선진 학생은 “보기만 해도 갑갑하고 각 잡힌 구조에서 벗어나 우리가 정말 원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이들이 바라본 학교 공간이 주는 느낌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에스럽다’, ‘직선’, ‘네모남’, ‘단조롭다’ 등등. 사용하면서 느낀 불편함에서는 여러 활동 공간의 부족을 1순위로 꼽았다. 이 외에도 휴게 공간 부족과 책걸상의 불편함을 제기한 반면, 기대하는 공간 변화로는 쉬면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발을 벗거나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 작은 무대가 있고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 잘 수 있는 공간 등은 아이들의 희망사항이다.

## 삶의 공간을 고민하는 과정이 프로젝트의 핵심

지난 1월 30일 건축가와 만나는 세 번째 워크숍에서 아이들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3D 모델을 보며 한층 더 깊이진 의견을 나눴다. 우선, 새롭게 구축된 공간은 아이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가변형 공간을 만들고 라운지나 카페 형태로 구성됐다. 또한, 중정과 야외 활동 공간을 사이사이 마련하고, 바닥 난방을 통해 편하게 쉼을 취할 수 있게 했다.

건축사사무소 최정우 소장은 “요구사항이 일반적으로 만나는 클라이언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이라고 해서 의견이 헛되거나 꿈같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 권익을 위



건축가와의 만남 (제공= 양정여고)

해 고민한 느낌이 들었다.”며 “다만 건축 공간에 대한 이해나 봐온 것들이 적어 아이들의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세미나 등이 선행된다면 아이디어가 훨씬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정영선 양정여고 교사(미술 전공)는 “드로잉과 건축의 완성도보다는 학생들이 학교 공간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을 중시했다. 세련미와 창작성보다는 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공간을 학생 스스로 공유하고, 이미지와 모형으로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실제 건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한다.

오는 3월 초까지 아이들이 건축가와 설계 디자인을 완성

하면, 2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8월까지 설계 시공을 마무리하게 된다. 앞으로 학교는 시공과 건축 과정에도 아이들이 직접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통로와 활동 여건을 만들고, 이를 영상과 기록집으로 만들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용자 참여 디자인을 고려하는 학교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할 계획이다.

이태경 교사는 “학교에서 건축이란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대형 이벤트다. 학생들이 건축을 소재로 디자인을 해볼 수 있고, 인터뷰를 진행할 수도 있고, 공간에 어울리는 이름을 지을 수도 있다.”며 새로운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한다. 2

## 학생 참여의 미래학교 공간

양정여고 증축교사는 기본적으로 열린 교실의 형식을 띠고 있다. 기존 조적조 교사동의 옥상부에 수직 증축되는 형식으로 약 110평 정도의 규모이다.

라이트룸이라는 개념으로 가볍고, 밝은 방이라는 뜻을 가진 이 공간은 몇 개의 동아리방, 열린중정, 열린교실, 양정갤러리, 양정서재 등이 열려 있어 다양하게 변용 가능한 공간으로 이어져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을 담을 수 있어야 하기에 가변적인 구조로 다양하게 쓰임이 가능하고, 급속적 기존 교실과는 다른 스케일, 다른 공간구조가 되도록 의도했다.

계절과 시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교실 사이의 중정은 옥상으로 이어져 학생들이 직접 관리하는 양정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쾌적한 환기 등을 위해 쉽게 개폐가 가능하도록 했다. 약 2개월간의 설계과정 후 감리 등을 통해 학생들이 시공과정에 벽화나 페인팅 등으로 참여가 가능한 부분도 남겨뒀다.



(제공= 유니트유에이 건축사사무소)



# 건축가의 눈으로 보는 학교 공간

## “우리가 공간을 만들지만 공간은 우리를 만든다”

우리 사회의 교육적 철학을 공간에 담자  
교육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자  
타당한 설계프로세스 등 제도적 뒷받침 필요

“우리가 건축(공간)을 만들지만 다시 그 건축(공간)이 우리를 만든다”라는 윈스턴 처칠의 유명한 말이 있다. 우리가 만들고 사용하는 공간이나 환경이 결국 다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규정하고 영향을 주게 된다는 의미이다.

지난 두 해에 걸쳐 서울시교육청에서 기획한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사업(이하 꿈담교실사업)의 총괄건축가로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실을 창의적, 감성적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일을 진행하였다. 2017년에는 20개교, 2018년에는 24개교의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을 대상으로 하였고 올해는 더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각 급 학교의

다양한 현장상황과 요구에 맞춘 44개의 사례가 만들어졌으니 앞으로 사업의 확산에 좀 더 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앞으로의 교육공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의 세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 교육공간 개선에 필요한 세 가지 개선사항

첫째, 교육공간을 만드는 사업이 단순히 공간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에서,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교육적 철학이 담긴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길 바란다. 상기 인용한 처칠의 말처럼 환경은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한 쪽에서는 새로운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동시에 다른 한 쪽에서는 교육전문가와 공간



전문가 그리고 사용자가 만나서 논의해야 한다. 앞으로의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 내용을 담는 공간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이미 시행된 꿈담교실사업을 통해 두 해 동안 교육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과정이 없으면 뒤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개발시대의 논리를 답습하는 탑다운 방식의 리모델링 사업에 그칠 수 있다.

둘째, 교육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학교 건축을 흔히 군대의 막사나 교도소에 비유하곤 한다. 그 만큼 관리와 통제가 쉽게 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간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70년대 7, 80명이던 우리의 교실도 이제 한 학급당 25명 정도의 규모로 줄어들었다. 핀란드가 20명 정도라고 하니 우리도 선진국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롭고 존중받아야 할 주체이다.

꿈담교실사업을 하면서 사용자 참여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교실이란 공간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관찰하고 생각해보는 어린이 동행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흥미로웠던 것은 아이들은 대부분 선생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마음껏 놀고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원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눈길이 닿지 않는 구석진 곳이 없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한다는 것이었다.

공간은 관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것이다. 사용자들을 위한 공간을 우선으로 만들고 관리의 방법을 찾아나가면 된다. (사실 선생님을 관리자로 규정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핀란드 학교의 중간놀이시간에는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1.2. 서울동답초 꿈담교실



마지막으로 개선이 시급한 사항은 좋은 건축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 공공건축 설계비는 공사비에 연동되어 있다. 설계는 지식반산업인데 비용 산정에 있어서는 양적 논리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교실 하나를 고치는 일과 신축학교 하나를 새로 짓는 일이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설계부터 공사과정까지를 아우르는 고민과 생각의 양은 분명 물리적 규모에만 비례한다고 할 수는 없다.

앞으로는 신축 학교설계보다는 기존에 있는 학교 공간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고치는 설계가 더 많아질 것이다. 타당한 설계표준 프로세스가 정립되고 일한 만큼 비용을 정산하는 실비정액가산식에 근거한 설계비가 책정되면 교육공간 개선에 관심 있는 좋은 건축가들의 참여가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다.

### 학령인구 감소, 질적 성장의 기회로 삼자

서울시내 학생 수가 4년 안에 90만 명 이하로 줄었다고 한다.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 수는 2013년 89만 9,600명으로 학생 수가 역대 최대였던 1999년의 230만 1,000명과 비교하면 40%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학령 인구수 감소를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동안 미뤄둔 질적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숲이 아니라 나무 한그루 한그루를 살피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아이들을 들여다보는데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⑦



#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 혁신 통해 미래교육 선도

## 노후 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학교 조성 위험·위해 요소 없는 안전한 학교 조성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혁신 추진

표준설계도에 의해 통제와 효율성을 기반으로 네모반듯하게 획일적으로 지어진 학교 공간은 교사와 학생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변화에도 부응하기 어렵다. 이런 교육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최근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학교 공간 혁신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강한 의지를 담은 정책으로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1월 9일, 서울 천일초등학교를 방문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꿈담교실'을 견학하고 학생·학부모·전문가들과 함께 학교 공간 혁신 추진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1월 10일에는 미래교육 변화에 부응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조성

을 위해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 1월 17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9 교육박람회 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는 “사람 중심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창의적이면서도 감성적인, 그리고 협력적인 학교 공간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공간의 혁신은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학교, 교육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주요 내용

교육부는 학교 공간 혁신을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교실단위 공간 혁신(1,250개교)과 학교단위의 공간 혁신(500개교) 사업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은 국정과제인 「학교 노후시설개선 및 수업환경개선」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 노후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표 1] 미래형 학교 공간 혁신

기존의 학교 시설	미래의 학교 공간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획일적인 학교 설계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다양한 공간 설계 및 배치
휴식·놀이·교류가 부족한 학습 위주의 학교 공간	어울림, 쉼과 교류가 가능한 휴게공간이 있는 학교 공간
공급자(교육청·학교) 위주의 학교 건축	학생이 참여한 수요자 맞춤형 공간 설계
지역사회와 분리된 학교 공간	복합화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 및 개방

“사람 중심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창의적이면서도 감성적인, 그리고 협력적인 학교 공간 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간의 혁신은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학교, 교육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유은혜 부총리 日

[표 2] 2019 학교시설 환경 개선 계획

쾌적한 교육시설 → 우리 집과 같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학교 환경 구축			
냉난방기 교체	16.9만실	39.0만실	40% 이상 교체
노후 화장실	53.6만㎡	108.0만㎡	50% 이상 개선
창호 교체	19,625실	45,880실	40% 이상 교체
LED등 교체	293,561실	583,753실	LED 설치비율 50% 이상 확대
성과지표	개선물량/총소요물량		성과목표
안전한 학교환경 →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위험·위해 요소 해소			
내진보강	13,310동	22,842동	전체 학교 70% 이상 보강
석면제거	15,345천㎡	24,271천㎡	전체 학교 90% 이상 제거
스프링클러 설치	795동	2,930동	790동 이상 설치 (유치원, 특수학교시설)
성과지표	개선물량/총소요물량		성과목표
미래 교육환경 → 미래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교실단위 공간	1,250개교	12,137개교	전체 학교 1,250개교 개선
학교단위 공간 등	500동	23,236동	개축 500동 및 유지관리 등
성과지표	개선물량/총소요물량		성과목표



학교 △ 위험·위해요소 없는 안전한 학교 △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혁신이라는 3가지 목표를 담고 있다.

**1] 쾌적한 학교시설 확보**

노후 냉·난방기를 고효율 냉·난방기로 교체하여 쾌적한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집중·냉골교실 해소를 추진한다. 노후 냉·난방기 교체대상 실은 총 39.0만실로 이중 '19년 1.8만실

을 우선 교체하고 '23년까지 향후 5년간 약 1조 2,273억 원을 투자하여 약 43.3%에 달하는 16.9만실의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5년간 노후 화장실 개선에 1조 9,800억 원을 투자하여 쉽고 휴식이 가능한 생활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초·중등학교 전체 화장실 496.8만㎡ 중 향후 5년 내 내구연한(약15년)이 도래하는 시설은 총 108.0만㎡로 '23년까지 49.7%

[표 3] 학교 단위 공간개선 및 유지관리

구분		'19	'20	'21	'22	'23	계
개축	개선물량(동수)	- (20동*)	70	110	150	170	500
	지원예산(억 원)	300	6,000	7,000	8,000	8,700	30,000
생애주기 관리유지	지원예산(억 원)	14,166	9,864	10,421	11,154	12,943	58,548

\*'19년도는 설계비 및 일부 공사비만 우선 지원  
※ (개축) 2,177천원/㎡(동당 평균 약 60억), (리모델링) 개축건물의 60% (동당 평균 약 40억)로 산정(교사동은 5,000㎡를 기준적용)

[표 4] 학교 공간 혁신 추진전략

구분	단기	중기	장기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부, 시도별 심사 시 예산편성 및 배정 기준과 방식 공개</li> <li>안정적 부대비용 마련 가능한 내실화된 예산 구조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시설 설립 및 보수 지침을 반영한 교육부 교부금 산출기준 상향 및 산출방식 개선</li> <li>지자체 재원 적극 활용</li> <li>공공 공간 구축비용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 및 기업의 기부금 적극활용</li> <li>신축, 개보수 등에 걸쳐 사용자 참여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재원 확보</li> <li>교내 시설 및 장비 관리 전문가 상주 인력 인건비 확보</li> </ul>
협력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부, 교육청, 시도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마련</li> <li>설계 시 교수자, 학습자 등 사용자 참여 방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전문가, 건축, 지자체 기획팀, 학부모, 학생 등으로 구성된 학교시설 설계위원회 신설 및 운영</li> <li>교육청, 건축계, 정책/현업 전문가 협력체계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시설재설계위원회 신설, 운영</li> <li>학교시설통합관리시스템 구축</li> <li>교육청 단위의 학교시설관리공단 설립, 단위학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마련</li> </ul>
법령 및 시설복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교사 면적 규명 범류 조항 개선</li> <li>학교설립, 보수를 위한 현실적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li> <li>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법적근거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학습활동에 따른 면적기준 권고 법률 조항 신설</li> <li>학교시설의 재원 마련 및 종합적 관리를 위한 지자체 참여 법적 근거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별 특화된 면적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법률조항 신설</li> <li>학교시설의 재원 마련을 위한 개인 및 기업 참여 법적 근거확보</li> </ul>

에 해당하는 53.6만㎡를 개선한다. 학교구성원의 남녀성비 및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위생기구를 설치하고, 특히 석면 마감재가 설치된 화장실을 우선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에너지 성능이 낮은 노후 창호를 단열성능이 좋은 고효율 창호(이중창 및 시스템창호 등)로 교체한다. 올해 2,039실을 우선 교체하고 2023년까지 19,652실을 교체할 방침이다. 노후 조명시설을 에너지효율이 높은 전등(LED)으로 교체하여 에너지절감 효과를 제고하고 수업에 적합하도록 실내조도를 개선한다. 현재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실은 총 583,573실로 향후 5년간 절반가량에 달하는 29.3만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밖에도 낡거나 파손된 책걸상 및 분필·칠판을 KS인증 제품으로 교체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실환경을 조성한다.

**2] 안전한 학교환경 실현**

재난위험시설(D, E등급)은 개축, 보수보강 및 철거 등을 통해 2년 안에 전면 해소하고, 공사 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교실 또는 대체시설 마련 등 학습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전국 초·중·고교 중 68,577동 중 재난위험시설로 추정되는 200동에 대해 '23년까지 보수·보강 및 철거함으로써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지진에 취약한 내진성능이 미흡한 건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내진보강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지진위험 지역은 매년 1,700억씩 지원하며 당초 '34년까지 완료 예정이던 내진보강을 오는 '24년까지 완료한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벽체를 학생 기숙사와 내화 기준 미충족 건물을 우선하여 교체하고, '30년까지 모든 샌드위치패널 벽체를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건물의 단열재를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유치원과 특수학교 건물은 '23년까지 모두 교체하기로 하였다.

법령상 의무설치 기관인 병설유치원(300㎡ 이상)과 더불어 모든 특수학교에 '23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3]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

또한 기존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학교 공간을 다양한 교수·학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된다. 놀이학습교실, 융합교육교실, 소규모 협력학습실 등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과 개방형 창의·감성 휴게학습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 공간 혁신 관련사업을 우선 지원('19.상)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공간별 다양한 모델을 마련('19.하), 향후 5년간 5천억 원을 투자하여 ('19) 150교 → ('20) 200교 → ('21) 250교 → ('22) 300교 → ('23) 350교, 총 1,250교를 목표로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미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획일화·표준화되어 있는 기존의 학교 공간을 학생 중심의 창의적·감성적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꿈담교실)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에 서울시 예산 35억, 교육청 예산 66억 등 총 101억 원(1실당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33교를 대상으로 창의적이면서도 감성이 묻어나는 교실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30년 이상 학교시설은 전체학교의 33.7%에 달하는 수준이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교수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특성화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 중 노후상태, 기능성, 경제적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축하되,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선적으로 개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



# 노르웨이 학교사례로 보는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본질

학생을 넘어서 개개인의 성격을 존중하는 공간  
 개인의 다양한 활동형태를 지원하는 공간  
 다양한 활동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공간

최근 들어 서울의 『꿈을 담은 학교』, 강원도의 『감성화 학교』 등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체들이 아직까지 학교 공간 재구조

화 사업을 기존의 시설사업을 확장형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시설개선 사업에 리모델링 요소를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공간 재구조화는 그 기원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 공간의 혁신이 아닌 『교육 혁신』에 목적을 두고 있다. 많이 알려진 것과 같이 교육 혁신은 단순히 교육과정의 변화를 넘어서 과연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관점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성취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올바르게 추진하고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교 공간 재구조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주요 공간에 대한 해외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도입함에 있어 정책가, 학교현장, 건축가 등 참여자들이 인식하여 할 핵심적인 사항을 짚어 보고자 한다.

## 해외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사례

[그림1]과 [그림2]는 노르웨이에 위치한 Ringstabekk Skole의 일반교실 내 공간들로 이 학교는 2015년 개축을 통하여 학교를 재구조화한 사례이다. [그림1]과 같이 일반교실 내부에는 학생들이 소규모 또는 개인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그림2]는 일반교실과 연계된 공간으로 소규모 수업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수업 중에도 서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높은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다.



[그림 1] 일반교실 내 휴게공간



[그림 2] 일반교실 내 소규모 수업공간

[그림3]과 [그림4]는 노르웨이에 위치한 Kuben Videregående Skole의 도서관 공간이다. 도서관은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도록 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완전히 개방된 상태로 유지된다. 또한 [그림3]에서 보듯이 도서관 내부는 서가보다는 학생들이 독서를 하거나 토의를 할 수 있는 공간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4]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조용히 독서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토의하고 즐기면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사용규모를 고려하여 다양한 크기의 테이블과 동적 또는 정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질의 가구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 도서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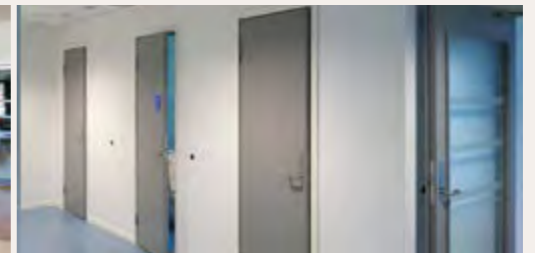


[그림 4] 도서관 내부 개별공간

[그림5]와 [그림6]은 Valle Hovin 학교의 공간들이다. [그림5]는 식당 내부로 획일적인 크기의 공간 또는 식탁을 배치하지 않고 소규모 그룹이 안락하게 식사할 수 있는 반개방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식당 내부에는 이 외에도 소파, 테이블 등 다양한 종류의 가구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그림6]은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개인 화장실로 이 학교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공중화장실 외에도 [그림6]과 같은 개인 화장실을 구비하고 있다.



[그림 5] 식당 내부 소규모 공간



[그림 6] 개인 화장실

## 학교 재구조화, 학생 개인 중심의 공간 조성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 공간 재구조화는 단순히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본래의 수준으로 돌려놓거나 리모델링을 통하여 아름다운 공간을 외형적으로 구성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그렇다고 단순히 학생이라는 집단의 요구를 총괄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i) 학생을 넘어서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는 공간, ii) 개인의 다양한 활동형태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더 나아가 iii) 개인의 다양한 활동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학교 공간 재구조화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교 공간 재구조화는 단순히 학습자 중심의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 개인 중심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본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㉔



# 제10회 방과후학교 대상 우수학교사례 “네 안의 끼와 꿈, 활짝 피어나라!”

2018년 방과후학교 대상 시상식이 지난 1월 17일 거행됐다. 영예의 대상은 전교생이 149명인 소규모 학교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등 ‘소리모아 꿈자람, 꿈모아 행복자람’ 프로그램을 선보인 대구 경진초등학교에 돌아갔다. 아이들의 꿈과 끼가 활짝 피어나는 방과후학교, 그 우수사례 수상학교를 소개한다.

## 대구 경진초등학교 ‘소리모아 꿈자람, 꿈모아 행복자람’

1월 24일 오후 3시,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경진초등학교(교장 박화자) 합주실. 긴 겨울방학을 마친 다음날이지만, 학생들은 제 몸집만한 첼로를 앞에 두고 하나둘씩 자리를 잡았다.

“학원에 가지 않고도 친구들과 첼로를 배우고, 또 연주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학교에서 작은 음악회도 열고, 다른 학교 오케스트라와 연합하여 연주회도 하고요.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요.”

이 첼로 수업에 3년째 참가하고 있다는 이하린 학생(6학년)의 소감이다. 하린 학생은 이 학교 경진오케스트라의 단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하린이의 미래 꿈도 첼리스트. 경진 오케스트라 지도를 맡고 있는 최혜린 교사는 “연주 실력도 출중한 하린이는 일찌감치 진로선택을 결정하면서 악기 수업과 오케스트라 활동에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고 들려줬다.

지난 제10회 방과후학교 대상 시상식에서 경진초교는 155개 공모지원 학교 중 가장 빼어나다는 평가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돌봄교실을 포함한 방과후학교의 비전, 학교 구성원의 헌신, 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지원, 지역 내 기관과의 네트워킹 구축,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진초교는 전 학년이 9학급, 149명인 소규모 학교다. 이곳에서 지난해 방과후 프로그램은 10개의 악기부서를 포함하여 모두 33개가 운영됐다. 박화자 교장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경진초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인 (사)경북예술문화원과 대구행복한재단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구축이 특징”이라면서 “2년 전부터는 예술교육 거점학교인 경진초교에 인근 타 학교의 학생들도 방과후 악기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진초교의 방과후 프로그램명은 ‘소리모아 꿈자람, 꿈모아 행복자람’. 33개 방과후 프로그램은 다시 ‘신(身), 언(言), 서(書), 판(判), 예(禮)’ 영역으로 세분화된다. 첫째, 신(身)은 건강하게 체력을 키우는 어린이가 되자는 것. 경진초교 학생들은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를 단련하고, 또 요리교실 및 학교농장의 텃밭 가꾸기 활동으로 건강한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박 교장은 “소규모 학교라 선수 선발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연습한 결과 대구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줄넘기 대회에서 남녀학생 모두 2017년 3위, 2018년에는 2위에 입상하는 등 발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랑했다.

## ‘언어 디톡스 正말情말’

학생들의 품격 있는 언행을 위한 ‘언어 디톡스 正말情말(정말정말)’도 경진초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언(어)성(품)을 높여라’ 강좌 개설 이후 아이들의 순화되고, 절제된 언어생활 덕분에 경진초교는 학교폭력 없는 학교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또 튼튼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두드림 공부방(書),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교실(判), 경진오케스트라 운영 등 예술 중심 방과후 프로그램(禮)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큰 즐거움이 되는 것이 경진초 방과후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돌봄교실에서는 1~3학년 희망학생 전원을 수용,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돌본다.

경진초교에서는 숲속 음악회, 등갯길 음악회, 작은 음악회 등 연 10회 이상 크고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방과후학교에서 갈고닦은 학생들의 꿈과 끼, 발표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다. 또 경진초교 학생들은 직접 그린메이트 경진팜 운영을 통해 불우이웃돕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학년별로 학생들이 손수 재배하고 수확한 오이, 가지, 고추 등 농작물은 학교 인근의 경로당에 나누어 드리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나눔활동도 실천한다. 이와 같은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경진초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결과는 97.7%. 학부모 만족도는 이보다 더 높은 98.2%를 기록하고 있다.





**충남 대산고등학교**    **기업과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축**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대산고등학교(교장 서소현)는 이번 방과후학교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농촌지역 고등학교로서 방과후학교와 대학입시를 연계,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거두고,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의 성공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함께 스타★를 키우는 대산 S.T.A.R. 방과후학교’ 지난해 운영했던 대산고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들이다. S.T.A.R.은 Society, Type, Art, Raise의 앞 글자를 딴 것. 방과후학교 운영을 담당하는 전병준 교사는 “S.T.A.R.에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더불어, 학생에게는 개별적인 맞춤형으로, 나아가 예술의 꿈도 놓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사고력을 성장시키자는 방과후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특히 지역교육공동체가 합심하여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 대산고 방과후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프로그램 중에서는 소사이어티(Society) 분야를 중심으로 ‘동고동락 창의융합, 진로맞춤 특기적성, 다해드림 특기적성’ 등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동고동락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한 주제를 프로젝트 형식으로 탐구하고, 산출물을 제작하는 활동. 특히 인근 지역의 LG화학에서 석사급 이상의 연구원이 동참, 학생들의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전병준 교사는 “타 학교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진행된 하지만, 지역사회 기업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학습은 찾

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많은 학생이 대입 자기소개서에 ‘가장 기억에 남는 교내 활동’으로 현업의 연구원들과 함께 진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이 활동을 꼽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진로맞춤 특기적성’에서는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바리스타, 드론, 플로리스트, 네일아트 등의 강좌가 개설돼 있다. 강사는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고, 서산시로 부터 예산을 교부받아 진행되는 만큼 대산고와 지역교육공동체 구현의 완결판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전병준 교사는 “인문계고에 개설된 직업교육인데다,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흥미를 못 느끼던 학생들도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만족도가 특히 높다.”고 소개했다.

‘다해드림’은 대산고 학생들의 봉사활동 프로그램. 노인대학, 지역아동, 재능기부 등 3개 분야의 봉사로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은 어르신 정보통신 교육(노인대학)과, 서산시내 보육원 등에서의 봉사활동(지역아동), 또 학교 인근에 있는 대진초교, 대산중학교 등에서 후배들의 멘토로서 재능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소현 교장은 “대산고는 엘지화학, 한화토탈, 현대오일뱅크 등 기업과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학생들도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교육기부의 선순환 체제를 잘 구현해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충남 대산고

**천안 환서중학교**    **3년간 사교육비 50% 절감효과**

충남 천안 환서중학교(교장 이현숙)는 전교생이 811명, 26학급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학교. 2013년 개교 당시만 해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3개에 불과했다. 2016년, 환서중은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에 돌입했다. 그리고 1년 만에 방과후학교는 충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5년 전, 3개 운영에 불과했던 환서중 방과후 프로그램은 지난해 57개의 특성 있는,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확장돼 운영됐다. 이 ‘반겨주는 학교, 웃음 주는 선생님, 행복한 방과후-D(Dream)+C(Career)=S(Sharing)=Love’라는 프로그램은 이번 방과후학교 대상에서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겼다. ‘꿈을 꾸고, 진로를 찾으며,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을 배우는’ 환서중 방과후학교는 독서·과학캠프 등의 교과수준별 3단계 교육, 아두이노 캠프 등의 정보코딩교육, 진로체험이 주가 되는 외식문화 미래진로교육, 외국어 캠프인 글로벌 외국어교육, 저소득층 통합지원교육인 드림캠프,

스포츠·음악·미술의 문화예술체육교육, 사제동행·아이사랑 캠프 등 모두 7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특히 지난 한해, 진로교과 영역에서는 과학융합반이 충남 과학융합대회 1위, 독서토론반은 전국대회 본선에 진출했으며, 또 전국사회참여토론회에서는 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환서중은 이 방과후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2016년 이후 3년 동안 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가 약 50% 정도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방과후 참여율 또한 지난해 98.1%를 기록했고,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결과는 94%로 나타났다. 정지혜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는 “57개 강좌 중에서 커피와 요리, 애견미용 등 진로와 관련된 영역이 학생들로부터 특히 인기가 많았다.”며 “외국어 중 프랑스어 강좌 개설 희망자도 있었지만, 강사 섭외에 애로사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서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정지혜 교사는 방과후 대상 교사·강사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천안 환서중



영천 별빛중학교

‘시골아이 스타로 키우는 별별방과후’

경북 영천의 별빛중학교(교장 이원락)는 기숙형 공립학교로 이번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별빛중 역시 농촌학교라는 특성상 사교육 없는, 특색 있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시골 학생들의 끼를 살리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시골아이 스타로 키우는 별별방과후’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여기에는 ‘행복한 star, 재능 있는 star, 실력 있는 star, 봉사하는 star’ 양성을 위한 12가지 운영 목표가 설계돼 있다.

기숙학교인 만큼 별빛중 방과후학교의 꽃은 야간 특기적

성 프로그램. 예체능(색소폰, 통기타, 가야금, 탁구, 필라테스, 캘리그라피 등 27개), 교양(중국어, 일본어, 영어, 선비아카데미, 교양한문, 한국사 탐구 등), 교과심화(심화영어, 심화수학, 창의수학 등 5개), 창의인성(소프트웨어, 드론, 로봇, 무한상상실 등)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별빛중은 겨울방학에는 비전캠프, 여름방학에는 행복캠프, 드림캠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고 있다. ㉠



영천 별빛중



제10회 방과후학교 대상 시상식 열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삼성꿈장학재단, 중앙일보가 공동주관한 제10회 방과후학교 대상 및 2018년 100대 우수 방과후학교 시상식이 지난 1월 17일 거행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교육부 박백범 차관을 비롯하여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 노성태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김숙정 방과후학교 대상 심사위원장, 그리고 방과후학교 관련 전국 지자체 인사와 교육기관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방과후학교 대상은 학교부문과 교사·강사부문, 그리고 지역사회파트너 부문이 각각 시상됐다. 시상식에 앞서 이번 방과후학교 학교부문 대상 수상학교인 대구경진초와 최우수상 수상교인 충남 천안 한서중학교, 대산고등학교의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학교부문 최우수상은 앞서 소개한 두 학교 외에 충북 대소초교, 충남 상서초교 등 4개 학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대구성서초교 외 6개 학교, 장려상에는 울산 월봉초교 외 7개 학교가 각각 선정됐다. 또 교사·강사부문에서는 김정여 교사(대전 산서초교)가 최우수상을, 외부강사를 포함하여 모두 17명의 교사·강사가 우수교사로서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또 지역사회파트너부문 지자체는 경기도 의정부시청(혁신교육지구사업 시즌 II)로 열여가는 행복교육도시 의정부), 비영리기관 및 단체 부문에서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 (사)더불어 함께(꾸러기 수비대, 민고 말기는 시흥 미래형 돌봄교실)가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서울 구립은평마을 방과후지원센터는 '마을 속 즐거운 방과후학교'로 우수상에 선정됐다.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오케스트라는 이날 시상식에서 '스타워즈', '환희의 송가' 등 아름다운 선율의 축하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부산 가락초교 등을 포함한 100대 우수 방과후학교도 선정 발표됐다. 이 중에서 3년 연속 100대 학교에 선정된 9개 학교가 '으뜸학교' 인증을 받았다. 으뜸학교 아홉 곳은 대구 남덕초교, 대전 신흥초교, 충북 감물초교, 충북 만수초교, 경남 설천초교, 충북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미호중학교, 충북 청석고, 전남 목포해인여고, 전남생명과학고 등이다.

“사람 중심 미래교육’ 가치 실현 앞당겨질 것”

시상식에서 김숙정 심사위원장은 이번 방과후학교 대상의 심사평으로 “방과후학교 운영방식과 프로그램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으며, 수준 또한 정규교육의 심화 및 보충은 물론 예체능, 과학, 컴퓨터, 문학 등 실생활과 접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더 많이 발굴되길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시상식에 참가한 박백범 차관은 환영사에서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경험을 제공,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2019년 교육부 업무추진 방향의 핵심인 ‘사람 중심 미래교육’의 가치를 앞당겨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북 기북초등학교 오지섭 군과 임용수 특수교사 전교생 16명의 작은 시골학교 단 한 명 제자와 특수교사의 행복한 동행



1

교육부장관상 2회 등 각종 수상으로 화제  
다양한 경험 쌓으며 어려운 가정환경 극복  
'정다운학교' 1년 운영 통합교육 효과 거둬

자그마한 얼굴에 웃음이 스며든다. 순한 눈매에 걸린 미소가 붉게 물든 볼로 번지더니 옆으로 옮겨간다. 웃음의 전이

(轉移). 기북초등학교 오지섭(12·지적장애)군과 임용수(33) 교사가 마주 볼 때면 일어나는 일상의 순간이다.

전교생이 16명인 경북 포항의 작은 시골학교에서 지섭이는 유일한 특수학급 학생이다. 크고 작은 일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그 옆에는 늘 임용수 특수교사가 있다. 맞잡은 두 손에 전해지는 사제의 정(情). 지난 한 해는 두 사람에

게 더욱 특별했다.

## 유일한 특수학급과 단 1명의 제자

마을 잔치가 열리는 학교운동회 날. 학부모와 지역주민,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온몸을 좌우로 흔들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사진 한 장에 담겼다. 국립특수교육원이 주최한 제 10회 전국 장애공감 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학생 작품이다.

‘흔들리며 어울리는 사회’란 의미를 담은 수상작은 지난해 카메라를 처음으로 배운 지섭이의 솜씨다. 학교 활동을 촬영해 온 사진 가운데 한 장을 골라 ‘다름’에서 ‘어울림’으로 나아가는 ‘우리’란 뜻을 전하고자 했다.

“응원단장의 울동에 맞춰 다 함께 온몸을 흔드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서 지섭이와 어울림에 대한 대화를 나눴어요. 함께 찍었던 사진들 가운데 주제에 맞는 사진을 선택하고 되새겨 보는 시간이 참 좋았지요.”

임용수 교사의 말이다. 2018 평창 패럴림픽 경기가 열린

- 1. 전교생이 함께 그린 벽화 앞에서 활짝 웃는 임용수 교사와 오지섭 군
- 2. 시상식 상금으로 산 자전거
- 3. 제10회 전국 장애공감 사진 공모전 대상 수상작 「흔들리며 어울리는 사회」

날에는 직접 응원에 나섰다. 휠체어 컬링 경기를 직접 관람한 후, 방민자 선수 사진 앞에 선

지섭이 얼굴에 환한 웃음이 걸렸다. 응원 준비부터 관람하고 돌아오는 과정을 UCC로 만든 지섭이는 “세상의 많은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꿈을 꾸며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주최한 2018 패럴림픽 가치 확산 및 평화통일 기원 UCC 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인 대상을 받았을 때는 마치 꿈을 이룬 듯했다. 남들에게 작은 성취로 보일지라도, 지섭이의 적잖은 노력이 만든 놀라운 결과였다. 임 교사의 소회는 남다른 수밖에 없다.

“천진난만하고 해맑던 지섭이가 시간이 지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무기력해지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각종 대회에 나가보고, 작은 결실을 거두면서 자존감이 높아졌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도 부족 늘었어요. 이젠 제가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이야기로 저를 놀라게 만듭니다(웃음).”



2



3

## 과학 발명대회 도전 ... 통합교육으로 인식 변화

단 하나인 특수학급 교실은 지섭이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교실 뒤편 게시판에는 지섭이가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상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다. 교육부장관상 외에도 경북 장애학생 e페스티벌 키넥트볼링 동상, 장애 아동·청소년 독후감 대회 장려상 등 활





동도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수상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다. 비장애학생이 참여하는 대회에서 시 대회 금상을 거쳐 도 대회까지 출전해 장려상을 거머쥐었다. 심사위원 앞에서 발명품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전교생은 물론 교장선생님도 기꺼이 예비 청중이 되어 줬다.

“2017년 말 5.4 규모로 포항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책상 아래 튼튼한 판이 있었으면 한다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안전모를 부착할 수 있는 책상 하부판을 고안하고, 직접 손잡이도 만들면서 발명가 꿈도 꿔지요.”

임 교사가 보는 지섭이는 다양한 꿈을 꿀 수 있고, 이를 수 있는 제자다. 지난해 교육부 지정 ‘정다운학교’ 운영으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모형 개발에 나서면서 주변 학생과 선생님들의 지섭이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다. 이제는 기복초의 자랑스러운 학생으로, 함께 하는 일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기복초 전교생은 매년 수화 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임 교사의 지도로 전교생이 수화를 배워 연말 음악회에서 선보인다. 평소 체육 시간에는 골볼, 시각장애 축구, 좌식 배구 등 장애인 스포츠를 통해 장애 인식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 임 교사는 “비장애 아동들과 함께 어울리며 같이 학교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통합교육의 기본”이라며 “교육이 통합되지 않으면 사회가 통합되지 못한다. 장애아동만을 위한 교육

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각 아이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이 가진 능력과 요구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 목욕·청소 등 함께 하는 일상 교육으로

지섭이와의 첫 만남은 4년 전 3월, 임 교사가 기복초등학교로 부임하면서부터다. 당시 2학년이던 지섭이는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 작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말투를 사용하는 귀여운 시골아이였다. 일반학급에 있던 아이를 눈여겨보기 시작한 건 지섭이의 학습수준과 가정형편 등을 알게되면서였다. 연세가 많은 부모님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은 어릴 때부터 지섭에게 많은 결핍을 낳았다. 잘 씻지 못해 항상 까치머리를 하고 다니는 지섭이에게 필요한 도움을 찾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지능검사를 받고, 의사 상담을 진행한 결과 특수교육 대상자로 2017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 후부터 임 교사는 지섭이에게 일상적인 생활 습관과 자립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늘 옆에서 보듬기 시작했다. 물을 무서워하는 지섭이와 목욕탕에 가서 머리 감는 법부터 씻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줬다. 집으로 가서 함께 청소하며 일일이 방 청소하는 법도 보여줬다.

영화 관람을 하기 전 표를 끊고 좌석을 직접 찾아가도록 한다는 그는 “10여 년 뒤 지섭이가 데이트할 때를 대비한다.”며 먼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는 중고거래에도 도전해 보고, 그간 수상금을 모아

자전거도 새로 장만했다. 매일 10~15분 자전거로 등하교하는 지섭이와 자전거를 고른 날, 과자를 사서 무사고 기원제도 올렸다. “여러 가지 처음 해보는 활동을 많이 한다.”는 지섭이는 “재밌고 신기하다.”며 웃는다.

#### “문재인 대통령님과 만남 꿈꿔요”

지섭이와 졸업 때까지 함께 하기 위해 기복초에 남은 임 교사는 올해 함께 하고 싶은 일도 참 많다. 우선, 제주도 수학여행으로 비행기를 한 번 타보고, 한라산을 함께 등반할 계획을 세웠다. 아쉽게도 올해는 이루지 못했던 문재인 대통령님과도 만남도 이루고 싶은 꿈이다.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지섭이도 관련된 소식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평양냉면을 대통령님과 먹고 싶다고 하네요(웃음). 지난해 청와대로 직접 편지도 보냈는데,

비록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지만 비서실에서 답변이 왔지요. 올해 다시 한 번 도전해 보려고요.”

임 교사의 걱정거리는 앞으로 지섭이가 진학할 주변 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다는 점이다. 지섭이를 위한 가장 좋은 환경에 대해 고민은 이처럼 쉽지가 않다. 현재 지섭이의 꿈은 대형버스 운전기사. “사람들을 태우고 다양한 곳을 다닐 수 있어 좋다.”는 지섭이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임 교사의 꿈이 참 닮았다. ②



4. 서로 마주보면 웃는 임 교사와 오군

5. 교실 뒤편에 전시된 지난 한 해 오군이 받은 상정들

6.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출품한 지진에 안전한 안전모 검용 책상 하부판

7.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경기 응원을 다녀 온 오군

8. 주황산 현장체험학습





# 김남준 서울불암초등학교 수석교사 수학, 보고 만지고 경험하라!



1

**2018 대한민국 수학교사상 수상  
의사소통용 수학활동지 개발, 활용  
수학적 경험은 곧 수학개념이며 학습!**

수학수업에서 학생 스스로 구성하는 수학적 경험이 곧 학생의 입장에서 수학 개념이고 학습이 된다.

김남준 서울불암초 수석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친구들과 활발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활동지를 개발하여 수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학생 각자에게 상시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과정 중심 평가와도 연계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수업 자료

를 활용하여 수학을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수업으로 구성함으로써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 수석교사는 2018 대한민국 수학교육상을 수상하였다.

대한민국 수학교육상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매년 학생 중심의 교실수업 개선으로 수학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그는 다양한 실생활 자료를 활용하여 수학의 유용성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기존 문제풀이 위주의 '가능성 영역' 학습을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활용하는 과제로 개발, 제공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이끈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1. 평면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서울불암초 4학년 아이들  
2. 온몸으로 도형을 표현하는 아이들  
4. 작은 삼각뿔이 거대한 피라미드로 변해가는 즐거운 수학놀이시간

## 학생들의 수학적 호기심을 깨워라

김남준 수석교사의 수업은 한 마디로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수업'으로 요약된다. 그 중심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생에게 의미 있는 '과제'를 제시해 오고 있다.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김 수석교사는 "이때 '과제'는 문제다운 것이어야 하며, 다른 수학 개념과 연결성을 갖추어야 하며, 수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나 개념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일예로 5학년 교육과정에서 언급되는 '1m<sup>2</sup>의 단위'를 학습할 때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신문지로 1m<sup>2</sup>를 만들어 크기를 눈으로 확인하고 1m<sup>2</sup> 단위를 이용하여 복도와 운동장의 넓이를 재어보는 활동도 가능하다. 지도할 내용과 학습요소를 최적화한 의미 있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수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김남준 수석교사는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수학은 쉽고 재미있어야 한다."며 문제풀이를 위한 수학이 아니라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해

오고 있다."고 말한다.

평면도형(사각형)을 배울 때 학생들이 교실 바닥에 누워 온 몸으로 사각형을 표현해 본다. 그 과정에서 교실은 즐거운 수학놀이터가 된다. 선대칭도형과 정육면체의 원리를 배울 때 색종이 접기가 좋은 학습도구가 된다. 입체도형(삼각뿔)을 배우는 과정에서 실제로 학생들과 4D프레임을 이용해서 4m 이상 높이의 피라미드를 만들기도 한다. 작은 삼각뿔이 거대한 피라미드로 변해 가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수학 개념을 이해하고 호기심도 왕성해진다.

누구나 한 번쯤 어려운 수학문제를 풀며 '도대체 수학을 왜 배워야할까?'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김 수석교사는 수학적 발견을 수업에 적극 활용하면서 수학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왜 수학을 배워야 하는지 일깨워준다.

영국의 간호사로 '광명의 천사'로 불리던 나이팅게일은 '로즈다이어그램(장미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도표)'을 이용해 군인들의 사망 원인을 분석하였다. 크림전쟁으로 죽은 영국군의 수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그 시절, 나이팅게일은

질병(전염병)에 의해 죽은 군인, 부상으로 인해 죽은 군인, 기타 원인에 의해 죽은 군인의 수를 통계로 나타냈다. 이 통계는 깨끗한 위생이 사람을 살린다는 증거가 되었고 19세기 최고의 통계그래픽으로 손꼽힌다.

인도의 수학자 카프리카의 이름을 딴 '카프리카수' 또한 수학의 유용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학습 자료이다. 카프리카는 어느 날 태풍에 두 조각 난 네 자리 수 '30 25'를 보고 번득이는 생각을 하게 되고 '30+25=55, 55x55=3025'



4



라는 규칙을 발견하였다. 김 수석교사는 나이팅게일의 로즈 다이어그램과 카프리카 수 등 수학적 이야기를 수업으로 가져와 학생들에게 수학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지 일깨워주고 있다.

**수학적 지식을 공유하며 함께 하는 수업**

수업에서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참여한다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김 교사의 수업시간, 학생들은 짝이나 모둠 학생에게 설명하거나 친구 가르치기 등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친구에게 전달하고 친구의 아이디어를 경청한다. 모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수학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히고 있다.

*“설명할 때 친구가 모르는 것까지 고려하면서 설명해야 해서 어휘력이 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수학을 하면서 다른 수학하고는 달리 말을 해야 해서 수학이 더 쉬워지고 이해력이 높아진 것 같아요.”(유명진 6학년생)*

*“친구에게 설명하면서 내 실력이 더 높아진 것 같고 앞으로 풀이과정을 열심히 써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남경현 6학년생)*

김남준 수석교사로부터 수학을 배우는 학생들의 공유 수업에 대한 평가다. 학생들은 친구에게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며 그렇게 성장 중이다.

**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수·학습자료 적극 활용**

김남준 수석교사는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경험을 갖

도록 활동 중심의 수학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도 노력 중이다.

그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로 신설된 놀이수학 및 탐구수학을 수학을 처음 접하는 초등학교 1학년에 접목하여 수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자료를 개발하였으며,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수업에 적합한 신체 중심 활동, 놀이 중심 활동, 교구 중심 활동의 세 영역으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였다.”고 설명한다.

또한 수학적 활동을 통한 창의성 개발을 할 수 있도록 5~6학년용 STEAM 체험활동 프로그램도 개발하였다. 일예로 실제 모습과 다른 착시도형을 만들어 관찰하고 여러 분야에 적용되는 사례를 찾아보는 것이다. 평평한 TV화면 속 입체 그림, 도로 한가운데 쓰인 글씨들, 착시도형을 관찰하고 실제 자로 길이도 재어본다. 직선이 왜 휘어져 보이는지, 같은 크기의 글씨가 왜 달라보이는지 그 원리를 알아본다. 학생들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으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도형의 구조를 탐구하고 착시 도형을 만들면서 수학적 흥미와 관심은 배가된다.

김 수석교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수학 자료 개발에 직접 참여했으며, 전국수학교사모임, 서울초등수학연구회 등에서 꾸준히 활동해 오고 있다. 이런 저력으로 그는 6년째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수학 컨설팅장학지원단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는 수학나눔학교 수학교육지원단으로 활동하며 교내외에 수업공개를 해오고 있다. 특히 신규, 저경력 교사를 위해 수업 설계와 실제 수업,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방법,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모델 등에 대한 수업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⑦

5. “정사각형으로 화이트보드를 채워볼까?”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수학교수 6. ‘수학이 놀자’ 수학이 쉽고 재미있을 때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된다.



**김남준 수석교사의 경험 속에서 수학개념 이해하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6학년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비와 비율’ 단원을 실생활 속에서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내는 예를 알아보고,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표현해 보았다.

이 수업은 비율을 보고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알아보는 수업으로, 가능성(확률, 통계)은 실생활에서 두루 쓰이고 꼭 필요한 수학적 소양이지만, 교과서에서 다루는 소재가 학생에게 흥미를 끌지 못하고 단순한 문제 풀이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소개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이끄는 데 중점을 두었다.

**● 가능성 이해하기 비가 올 가능성은?**

날씨와 일기예보는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소재이다. 특히 일기예보 중 비가 올 가능성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일기예보에서 비가 올 가능성을 수업의 소재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일으키고 가능성을 일상생활 속에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일기예보에서 가능성의 의미를 탐색하고 퀴즈쇼를 통해 비가 올 가능성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기상청의 주간예보(데이터)를 이용해 ‘비가 올 가능성과 일상생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눈다.



**● 개념 확장하기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까?**

어느 두 사람의 생일이 같은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그런데 우리 학급에 생일이 같은 두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의외로 높다. 학급을 대상으로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실제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생일이 같은 사람이 2명 있을 가능성을 나타낸 그래프를 보고 그 의미를 해석해 본다. 전체 사람 수에 따라 생일이 같은 학생이 있을 확률을 계산해 보면, 10명 중에서는 약 12%, 20명 중에서는 약 41%, 30명 중에서는 약 71%가 된다. 100명일 경우에는 99.99996%가 되어 거의 100%이다. 즉 학생이 100명 모여 있다면, 그 중 생일이 같은 학생이 반드시 있다.

**● 개념 적용하기 나이팅게일과 로즈다이어그램**

어려서부터 수학을 공부하였고 통계를 일상생활에 적극 활용하였던 나이팅게일의 일화를 통해 로즈다이어그램의 특징을 알아보고 통계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나이팅게일은 로즈다이어그램을 이용해 군인들의 사망 원인을 분석하였다. 나이팅게일의 사례를 통해 수학의 유용성을 깨달을 수 있다.



학생의 사전 경험과 흥미를 고려하여 실제 접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학 개념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개념 익히기 → 개념 확장하기 → 개념 적용하기 과정을 거쳐 이전에 배웠던 개념과 새로운 개념을 연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또한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나 수학적 원리는 짝 또는 모둠활동을 통해 생각을 공유하였다.



#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톡톡 튀는 창업 아이디어 눈길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 생활 속 '불편 제로' 도전



## 전국 60개 창업동아리 본선 진출 환경·건강·먹거리 등 사회 문제 해결 동아리 피칭대회와 가상투자자 열기 UP

“무심코 버려지는 영수증에 가치를 불어 넣자!”  
하루에도 수천 장씩 버려지는 영수증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자주 사용하지만, 쓸모없는 물건. 영수증에 대

한 생활 속 고정관념을 바꾸는 일은 곧 창업 아이디어로 이어졌다.

‘영수증에 가치를 더하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것도 막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버려지는 영수증은 A4 용지 24억 장 분량으로, 나무로 환산하면 24만 그루에 해당한다. 입이 떡 벌어지는 조사 결과를 두고, 아이들은 머리를 맞대며 함께 고민을 시작했다. 기업가 정신 수업에서 배운 지

1. 경기 백석고 창업동아리 홍보 부스
2. 창업경진대회 전경
3. 창업체험교육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4. 동아리 피칭대회



식도 총동원됐다. 몇 개월 후 ‘가치와 함께 가는 우리’를 사명으로 세우고 신개념 영수증을 선보인 아이들. 지난 1월 15일 서울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한 창업동아리 서울 인창중학교 ‘두빛나래’팀이다.

## 창업동아리 60개 본선 진출... 사회 문제 해결로 창업

“영수증에 해당 점포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넣어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영수증을 보도록 하려 합니다. 마트 영수증에 식료품을 만들 수 있는 음식에 대한 레시피를 첨부하거나 카페 영수증에 영양 정보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영수증에 가치를 더하는 거죠.”

마요네즈 회사 ‘헬만’의 사례를 들며 사업 전략과 강점을 자신 있게 설명하는 아이들은 이미 ‘청소년 CEO’였다.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다. 청소년의 도전정신과 창업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함께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행사다.

올해 본선대회에는 지난 9월까지 창업체험교육 누리집(www.yeep.kr)을 통해 접수된 122개 팀 중 예산을 통과한 전국 중·고 창업동아리 60개 팀이 참여했다.

홍보 부스 곳곳에서 아이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놀이공원 안에 있는 이용시설 사이의 거리를 고려해 최적의 루트를 안내하는 남대전고 IDEA, 10대들을 위한 농

촌체험 활성화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대동세무고 GD벤처스, 헤어화 디자인과 고체향수 목걸이를 통해 역사적으로 왜곡된 기생의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하는 제주 표선고 그린나래도 치열한 가상투자 유치에 뛰어 들었다.

창원과학고 Wonup은 노인건강을 위한 노인 간식 판매 플랫폼을 선보였다. 자주 가는 봉사활동 기관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며 ‘아이들 간식은 다양하데, 왜 노인 건강을 위한 간식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 창업이다. 이 외에도 청년실업자를 위한 취업정보 앱이나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자서전,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 출동을 돕는 앱 등 환경·건강·먹거리 등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다는은 공동체를 위해 고민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 호기심이 창업으로... ‘청소년 CEO’로 성장하다

각 팀은 활동 결과물과 함께 공개 설명회를 갖는 한편, 일반 관람객과 동아리 상호 간 모바일 가상투자(클라우드 펀딩)가 실시간으로 진행돼 홍보전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전시장 내에 마련된 공개 설명회장, 특별로 주어인 3분의 시간 동안 각 팀은 창업 아이디어와 사업화 전략, 향후 10년의 비전에 대한 제시도 곁들인다. 무대에 올라 서로 창업 아이템에 대한 질문을 주고받을 때는 사뭇 날카롭기도 하다. “어르신들의 자서전이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묻고 “10대들의 카드뉴스가 부모들에게도 매력적일 수 있나?”를 통해 사업 방향에 대해 의문도 제시한다. 심사위원들의 질문과 지적에도 아이들은 최소 6개월 이상 사전 조사와 탐구, 시제품 제작에 이르는 활동을 해왔기에 거침없는 답변을 내놓는다.



대구 경상고 블루오션은 ‘미래를 책임질 친환경 신소재’를 주제로 친환경 자전거 소재를 선보였다. 소재 연구를 위해 여러 차례 실험을 거듭하고, 인근 대학의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며 몇 개월에 걸쳐 직접 시제품도 완성했다. 김민성 학생(2학년)은 “고생이 참 많았다(웃음). 미래 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적 신소재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 앞으로 창업도 꿈꾸고 있다.”고 말한다. 윤연주 동아리 지도교사는 “아이들이 더 많이 안다. 과학중점 학교로 과제 연구와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시제품을 만들었다.”며 웃는다. ㉔

- 5. 인천 문일여고 창업동아리 홍보 부스
- 6. 경기 동탄국제고 사회경제동아리. 소방관 업무에 대해 배우는 보드게임으로 소방 장비를 지원하는 'EXP 119'

**학생 창업교육 활성화**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 학생의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체험교육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17년부터는 고등교육 단계 이후에 집중돼 있던 창업교육을 초·중등교육 단계까지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학생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17.10)을 발표한 후 온·오프라인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해 5월부터는 기존 학교 단위로만 사용 가능했던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YEEP)\*'을 초·중·고 학생, 교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가상 창업체험' 기능을 통해 개인별 역할에 맞는 활동과 프로젝트형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체험교육 기회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회 스타트업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창업체험센터' 10개소를 선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 학교 수업 기반의 창업체험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27개 창업체험교육 교사연구회 운영을 지원하고, 창업체험교육 관련 지식채널e 콘텐츠 26종(EBS),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활용한 가상 체험 콘텐츠 5종을 제공했다.

\*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Youth Entrepreneurship Experience Program) [www.yeep.kr](http://www.yeep.kr)**  
학교 수업 기반 창업체험교육 운영을 위해 교안,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생 창업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이모저모**

**경기 능동중학교 VIC 비 오는 날 손에 빗물이 묻지 않는 우산**



“창업 체험을 하는 날에 비가 왔어요. 우산에서 똑똑 떨어지는 빗물이 불편하다고 느꼈을 때, 주변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게 됐죠”

경기 화성 능동중 VIC는 various idea company의 약자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는 회사라는 뜻이다. CEO인 1학년 장유진 학생을 주축으로 6명이 모여 생활 속 ‘불편 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본선대회에 선보인 ‘메그렐라’는 우산 끈이 아닌 자석을 사용해 손에 빗물이 묻지 않도록 편리함을 제공하면서 가상 투자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장

유진 양은 “어떤 자석을 써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다. 멘토링의 도움과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 원자석의 자력 크기가 적당하다는 걸 알았다.”고 했다. 16개당 1천 원인 원자석을 우산에 부착하고, 시장 분석을 통해 책정한 가격은 4,500원. 10명 중 8명은 빗물이 손에 묻어 불편함을 느낀 적 있다는 설문 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획득한 VIC는 메그렐라 ‘판매 대박’의 꿈을 꾸고 있다.

**인천 문일여자고등학교 TBA 환경 보호하는 로컬푸드로 유기견 돕기**



“버려지는 강아지를 어떻게 도울까?”

강아지를 키우는 친구들이 모여 유기견 문제를 고민하다 아이디어가 스쳤다. 모양이 예쁘지 않아 버려지는 많은 양의 야채를 유기 동물을 위한 간식으로 만들기. 상품성이 떨어지는 야채를 기부해 농장은 무료로 홍보 효과를 얻고, 동물 보호 단체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사료를 지원받는 Win Win 전략이다. CEO 안은선 학생(문일여고 3학년)은

“동아리 발표대회에서 사료를 직접 판매하고 수익금 10여만 원을 동물 보호소에 기부했다. 반응이 좋아 마케팅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었다.”고 웃는다. 5명의 창업 멤버는 10대들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자며 TBA(Teenagers be ambitious)로 사명을 정하고, 무농약 채소를 키워 만드는 친환경적인 사료 ‘에코펫스틱’을 선보였다. 수익의 50%는 유기견 보호센터에 기부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반려견을 키우는 1천만 명 고객을 위한 홍보 전략도 세웠다. 안은선 학생은 “식품영양에 대해 더 공부해 보고 싶다. 다른 기업과 차별화하면서 수익 창출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경기 백석고등학교 매시 휴지와 휴지통의 편안한 만남, 휴휴**



“아~ 화장지 버리는 게 정말 귀찮는데, 이 일을 누가 가장 귀찮아할까?”

경기 양주 백석고 매시는 ‘휴휴’란 개발품으로 본선대회에 진출했다. 휴휴는 쓰레기통과 티슈 칸을 결합한 제품으로, 휴지를 사용한 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개발품이다. 유모차에 고정해 사용할 수 있고, 부피 조절과 방수 처리 기능을 더해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CEO 백준우 학생(2학년)은 “누가 가장 많이 불편해할까에 대한 고민이 컸다. 이번 창업을 통해 우리 주변에 대한 인식이 넓어진 것 같다.”고 말한다. 백준우 학생과 7명의

발명 동아리원이 모여 창업한 매시(魅時)는 도깨비(魅)같은 힘으로 매력적인 시간(時)을 만든다는 뜻을 담아, 사소한 불편을 개선하는 데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은 “함께 모여 문제를 해결할 때 나오는 상상의 힘으로 기업을 만들어 가겠다.”며 활짝 웃는다.



# 1천 원이 만들어 낸 기적 외국인 노동자 돕는 작은 손길의 힘



아프리카 이주노동자들의 쉼터인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방문

1천여 원의 작은 정성을 모아 9년째 매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뜻을 모은 300여 명은 지금까지 20여 개국 약 14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도왔다. 벼랑 끝에 몰린 우리 이웃을 돕기 위해 작은 손길이 모여 이룬 기적이다.

## 9년 전 특수교사로부터 시작

첫 시작인 2010년에는 13명으로 출발했다. 중·고등학교에서 수학과 기술을 가르치던 이정기 선생님이 그 중심에 섰다. 그는 1996년 좀 더 보람찬 일을 하기 위해 특수교사로 전향한 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줄곧 관심을 기울여 왔다. 여기에 주변 동료들이 뜻을 함께 모으면서 ‘간식, 관심, 생명’ 세 단어를 중심으로 두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에 도움을 주려는 일을 시작했다.

“제 삶의 신조는 제안자입니다. 작은 일, 숨은 일을

찾아내 제안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지요. 한국에 와서 힘든 일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수입 대부분을 가족에게 송금하고 최소한의 돈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다치거나 큰 병에 걸리면 벼랑 끝에서 세계 됩니다. 이들을 이방인이 아닌 우리 가족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도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간식비 1천 원 정도로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동행과 행동’은 외국인 근로자를 돕는 비영리단체로 첫발을 내디뎠다.

## 외국인 노동자는 이방인 아닌 ‘가족’

올해로 9년째 작은 도움의 손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교내에서 키운 콩나물을 1천 원에 판매하며 모은 돈을 기부한 부산 백양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과 교사. 교내 바자회를 통해 생긴 수익금을 전달한 재송중학교·부흥고등학교와 간식비 1천 원을 매월 후원하는 유치원 아이들도 있다.

월급의 일정액을 보내오는 선생님은 물론, 어느새 직장인이 된 제자들도 꾸준히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다. 십시일반 모인 돈이 어느새 1억여 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해 모든 돈은 외국인 노동자를 돕고, 운영에 관련한 모든 일은 ‘동행과 행동’ 운영위원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고 있다.

운영위원은 지난해 퇴직한 특수교사 이정기 선생님, 이명진 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하수정 경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동현 동래고등학교 특수교사, 오미경 전 천주교부산교구 사무국장 등 5명이다. 이들은 사례 회의, 기부금 관리, 홈페이지 제작 등 굵은일을 모두 도맡아 하고 있다.

## 숨진 노동자 고국 소환 도와

지난해 12월 12일 방글라데시에서 온 두레인(48, 가명) 씨는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119 구급대원의 30분 넘는 심폐소생술로 살아났다. 그러나 20년간 몸을 아끼지 않으며 힘든 일을 지속한 탓에 건강은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심근경색 등으로 바로 수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다.

병원비는 수술 등으로 2천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다. 인천성모병원 직원들은 모금 활동을 시작했지만 턱없이 부족했고, 도움을 구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를 안 이정기 선생님과

후원자 300여 명이 헌혈증과 후원금을 모아 인천성모병원에 전달했다.

이주경 인천성모병원 사회복지사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수술비용이 처리되어야 고국으로 돌아갈



이정기 동행과 행동 대표

수 있는데, 이정기 선생님을 비롯한 기부자들 덕분에 12월 19일 두레인 씨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 교육 사각지대 해소 노력에 앞장설 것

그 후 이정기 선생님에게 전화 한 통이 왔다.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였고, 알 수 없는 말이 계속 이어졌다.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찰나, “나, 엄마, 고맙습니다.”라는 서툰 한국어 말이 들려왔다. 두레인 씨 어머니로부터 걸려온 감사 전화였다. 이정기 선생님의 말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일은 행복하지만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생명을 구할 때가 많아 인근 병원과 연결되는 경우도 많지요. 앞으로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싶습니다.”

이정기 선생님을 비롯한 ‘동행과 행동’이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그들을 응원하며 앞으로 활동을 기대해 본다. ②

학생, 학부모, 교사 회원의 활동 모습







# “이제는 안전의식도 점검해야 합니다”

**교육분야 국가안전대진단(2.18~4.19) 실시  
2027년까지 석면 제로 학교 만든다  
매년 1,700억씩 투입, '24년까지 내진보강 완료**

몇 해 전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어머니와 어린 딸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만 바닥이 없어 추락하여 둘 다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비극

적 사고가 발생했다. 우선 멀쩡한 엘리베이터가 아무런 사전 조짐 징후도 없이 한순간에 바닥이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 결코 아니다.

아마 이 엘리베이터는 이런 사고 발생 전에 여러 차례 경고를 주는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하지만 탑승자의 대부분은 “설마 사고가...”라며 안일하게 넘겼을 것이다. 만일 이중 어느 한명이라도 점검기관에 전화를 하여 “이 엘리베이터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빨리 점검해주세요”라고 신고해 점검이 이뤄졌다면, 바닥이 없어지는 대형 참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설마 사고가 나겠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결코 눈앞에 있는 위험을 발견할 수가 없다. “만에 하나 사고가”라는 생각을 갖고 보면 비로소 위험이 눈에 보이는 것이다.

## 학교는 최고로 안전해야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는 어느 장소보다도 최고로 안전해야한다.

그럼 과연 학교는 안전한가? 라는 물음에 “안전하다”라고 선뜻 답하기에는 너무나 여건이 열악하다. 우선 학교 내에 차와 학생들의 이동 동선이 명확히 분리가 안 되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어느 초등학교를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학교 담장쪽 펜스 끝부분 모서리 위험, 경사로 옹벽쪽 난간 높이가 낮아 아이들이 올라타면 뒤로 떨어질 위험성 등 25가지의 위험 사례가 지적됐다. 이런 위험은 다른 학교도 유사할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교육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학교 내 위험시설과 위험사례를 모두 찾아내어 개선시켜 학생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 2-3월 경에는 해빙기 안전점검으로 대체하여 진행하며, 재난위험시설, 공사장 인접 교육시설 등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학부모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안전점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안전한 생활문화 정착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2027년까지 석면 제로 학교를 실현시켜 석면의 공포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주는

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 또한 신학기를 앞두고 겨울방학 중 석면제거공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기준(안)을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지난해 연말까지 학교구성원 및 시·도 교육청 관계자 9,800여 명의 교육도 완료하였다. 오는 2월말까지 현장에서 발생한 시정 가능한 부분은 즉각 시정하고 안전한 석면제거가 이뤄지도록 현장지도 강화와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지진위험 지역에 있는 초·중·고교에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700억 원씩 투입하여 내진보강을 완료키로 하는 「학교시설 내진 보강 투자 확대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국립대학(부설학교 포함)의 경우 매년 1천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 인적요인 개선하면 사고 88% 감소

사고는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안전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부주의한 행동을 할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환경을 찾아 개선시켜주고 교육을 통해 안전 지식을 길러주고 그 지식을 평상 시에 생활화하는 노력을 할 때 사고는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연구한 맥켄지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는 인적 요인, 시설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교육을 통해 인적 요인을 개선시켜 준다면 사고의 88%는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교육부의 그간 노력은 시설점검과 개선에 집중되어 왔다. 이제는 안전의식을 점검하여 인적 요인을 개선시켜주는 노력을 투 트랩으로 병행시킬 때가 되었다.

이는 시설이 아무리 잘 개선되어도 이용자, 관리자가 부주의하게 행동하면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번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점검대상에 학교를 운영하는 관리자·교직원·학생과 학부모까지 학생들 사고예방을 위한 의식 점검도 포함시켰으면 한다. 그래서 “설마 사고가 나겠어?”라는 안일한 의식을 버리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의식을 심어주어 ‘나 자신’, ‘내 주변’, ‘우리학교와 가정의 위험요소’를 모두 찾아 개선시켜 나가야한다.

차제 소중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학교의 관리자와 교직원, 학부모까지 나서서 참여할 수 있는 의식 점검 방법 및 실천 매뉴얼을 만들고 “안전할 때 안전을 챙기겠다.”는 생각으로 다함께 교차 점검(cross checking) 시스템을 확보해 나갔으면 한다. ㉠



#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정책 간담회 교과서, 다양성·창의성 높이고 교사·학생 선택권 강화해야

미래사회 대비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과서 발행체제가 개선된다. 최소한의 기준만 갖추면 교과서를 자유롭게 펴낼 수 있는 자유발행제 도입 등 국가 개입은 최소화하고 행·재정 지원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현장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위원회가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 패널

김차명 배곧초등학교 교사	임덕연 이포초등학교하호분교장 교사
박은진 흥덕고등학교 학부모	박창언 부산대학교 교수(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위원장)
이환철 한국과학창의재단 팀장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사회 : 강현숙 충북 과산중평교육지원청 장학사(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위원회 위원)

일시	2019년 1월 31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한국교과서연구재단 5층 회의실
총괄	이상엽 / 양서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교육연구사	정리	편집실

**사회** 올해 초 교과서의 다양성, 창의성 확대를 위한 발행체제 개선안이 발표됐습니다. 교육 현장의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에 담긴 주요 내용에 대해 교육부에서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주요 내용

**김성근** 우선, 초등학교는 대부분 국정교과서인데, 초등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용도서 65책을 검정도서로 전환합니다. 둘째는 그동안 검정심사 제도가 경직돼 왔고, 집필 상 지침이 매우 촘촘해 실질적으로 국정교과서와 큰 차이 없는 형태로 진행돼 왔습니다. 이

를 완화해 1·2차로 분리돼 있던 본심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수정 지시를 수정 권고로 완화하여 전문가를 더 존중하면서 심사진과 집필진의 권한을 균형 있게 배분했습니다.

셋째 우선 도입할 수 있는 고등학교 전문교과 1, II 총 284책 및 고등학교 학교장 개설과목을 자유발행 대상 교과로 선정해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집필진의 자율평가 체제로 전환해 헌법 또는 법령에 어긋나거나 사회 통념상 문제가 없는 경우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했습니다. 넷째로는 교과서 발행과 사용 단계에서 상시로 품질을 관리하고, 현장 교원의 교과서 저작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교과용도서 발행체제 개선으로 이제 우리



사회 강현숙 충북 과산중평교육지원청 장학사(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위원회 위원)

“교사의 전문성은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됩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현장의 혁신 의지를 살리는 교과서 발행체제로 개선합니다.”

는 더 포용사회를 만드는, 아이들이 걸어가 창조적 한국을 형성하는 출발선에 섰다고 봅니다.

## 교과서 다양화·자율화는 시대 흐름

**사회** 교과서 발행체제를 개선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김성근** 교과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우리 교육 패러다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교육과정 체제가 광복 이후 50~6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이때 우리는 서구 중심으로 만들어진 지식들을 빠른 시간에 습득하고,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식 중심, 전달 중심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과 국가 교육 시스템이 작동해왔지요

하지만 지식기반 사회로 들어서면서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교육 패러다임도 창의적이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 내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내적 동력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발현시키는 일이 중요해졌지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또한 시도교육청과 학교 단위에서 다양하게 재구성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과서는 큰 줄기로 보면 두 가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빨리 수용되고, 그것을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풍부한 지식 체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교과서 지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수업을 다양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교과서들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사와 학생이 중심이 되는 새롭고 창의적인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과서 발행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문

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교과서 자유발행제는 국정과제가 되었지요. 교육부는 교과용도서 발행체제 개선을 통해 이제까지 국정, 검·인정 발행체제 전반에 내재했던 규제적·관료적 통제 요소를 최소화하고, 교원과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혁신 의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교과서 발행체제 자율화 다양화 방안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박창언** 교과서 제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광복 이후에는 국가가 직접 교과서 제작에 관여해 그 내용 등을 결정하는 국정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후 민간에서 교과서를 개발해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는 검정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다 7차 교육과정이 들어서면서 심사기준이 완화된 인정교과서가 도입·확대돼 왔지요. 2009 교육과정에서 인정 도서 비율이 85%까지 높아지다 최근 자유발행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국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바뀌는 추세로 이는 말씀하신 사회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전달하고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 소통을 통해 다른 지식층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절대적 지식과 함께 상대적 지식도 중요해졌습니다. 교과서가 이 모든 지식을 다 담아내지 못하자 학교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게 되고, 수업 방식도 다양화할 수밖에 없게 됐죠. 이제는 교과서가 교수학습 자료처럼 수업에서 상대적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역할의 변화라 할 수 있어요. 자유발행제는 자격요건을 가진 자가 국가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초등 검정도서 확대로 교사 전문성 확대

**임덕연** 어린 시절 공부하던 교과서와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금의 교과서를 비교하면 질적으로 발전했음을 느낍니다. 과거





임덕연 이포초등학교하호분교장 교사

“교사들의 선택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가 크죠.”



박은진 홍덕고등학교 학부모

“교과서에 대한 학부모 인식 전환도 필요해요.”



이환철 한국과학창의재단 팀장

“집필진의 자율성 확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차명 배곤초등학교 교사

“교과서가 아닌 교사가 콘텐츠가 돼야 하죠.”



박창언 부산대학교 교수(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위원장)

“점진적으로 자유발행 추진이 필요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학생이 배워야 할 지식의 총량이었고, 교사에게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연구해야 할 대상이었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 교과서 펴세요’ 하면 공부가 시작됐고, 교과서를 덮으면 학생들은 공부가 끝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는 것을 의미했지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교사들은 교과서보다 교육과정에 더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재구성하여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교과서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연구 안 하는 교사로 치부될 만큼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사도 많고, 교과서는 단지 참고할 자료의 하나로 인식하는 흐름이 점차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초등학교 예체능 교과 검정교과서 발행에 이어 주교과목 검정제 확대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요. 이제는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을 표방하는 현 교육지표에 교과서도 현장에서 교수학습하는 교사-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해요. 국가가 제시한 학년별 성취목표에 도달하는 내용과 방법은 다양할 수 있고, 지역과 환경에 따라 성취목표에 도달하는 속도도 다양할 수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분교 교실에는 5~6명의 아이가 있는데, 교과서대로 모둠을 구성하거나 게임을 하려면 안 되거든요. 이러한 소인수 학습이 지방에는 많고, 횡단보도가 없는 시골에서 횡단보도 안전 수칙 등을 가르치라고 하면 힘들어요. 검·인정은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봐요.

**김차명** 선생님들은 매년 새로운 아이들을 맞이할 때마다 점점 더 지도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아이들이 바뀌고 있을 뿐입니다.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지만, 막상 교사들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옷차림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등 선생님이 하는 말이나 단어는 고정되어 있죠. 이 모든 걸 만드는 게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00년생이 고대 1학년이 됐는데, 초등 교원이 되는 고대 출신들은 제가 봐도 능력이 뛰어나요. 그런데도 초등교사 18만여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030세대의 젊은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자기 끼를 펼치지 못해요. 수많은 규정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립니다. 이 모든 것이 교사가 아닌 교과서를 중요한 콘텐츠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선을 바꾸는 시작으로서 검정 체제로의 전환이 의미 있다고 봅니다.

**임덕연** 지금까지 중·고등에는 검·인정 도서가 많았고, 초등은 상대적으로 국정교과서 위주로 이뤄져 있었어요. 일각에서는 초등교과서의 검정 전환으로 어린아이에게 혼란스러운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하나의 교과서를 통해 아이들에게 하나의 지식이나 가치관을 심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 사회는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됐습니다. 성, 종교, 이념 등 첨예한 갈등도 있지만, 사회 속에서 충분히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봐요. 일부 독재국가를 제외하고 세계적으로도 국정교과서만 쓰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긴 유럽에서는 검·인정, 자유발행제가 많지만,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국가에서는 아직도 국정교과서가 많지요. 검·인정이나 자유발행제의 도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 사례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박은진**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2기 학부모’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서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세대이지만,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교과서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왜 교과서 진도

를 안 나가는지?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왜 교과서를 덮을까 하는 의문에 교실을 들여다보면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라는 걸 듣게 됐지요. 교과서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수업 자료의 일부분임을 인지했고, 이것이 혁신교육인가보다 느꼈습니다. 그런데 미래교육, 4차 산업혁명에 학부모에게 공포예요. 대학 잘 보내서 어느 정도 직업이 보장되면 아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지금 직업의 80%가 사라진다고 하니 두려워서 학교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됐죠. 요즘 아이들의 배움은 교과서가 아니더군요. 인터넷을 통해 다 해결이 돼요. 하버드 대학 등에서도 오픈 강좌가 열려 학교 밖에서도 수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앞과 삶이 일치되고 있지요. 이런 점에서 검정이든 자유발행이든 이런 건 부차적인 문제고, 교육의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봐요.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한다면, 교과서 외에도 다양한 책, 온라인 정보, 체험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덕연** 현재 초등학교 검정도서인 예체능, 영어교과서를 보면 다양한 편집과 고급종이를 사용하고 있고, 글과 그림, 도표의 단순조음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진과 그래픽을 이용해 세련미가 높습니다. 초등 검정도서 확대를 통해 교과서의 질도 대폭 향상될 거라 확신해요. 다만, 검정심사 기준이 까다로워 초등학교의 예체능, 영어 검정도서를 살펴보면 눈에 띄는 특징을 찾기 어렵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도 별다르지 않아 형식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요인도 발생하고 있죠.

**합격·불합격에 얽매인 심사 개선**

**이환철** 교사로 17년간 근무하면서 교과서 심사가 얼마나 매몰찬지 경험했습니다(웃음). 심사위원들에게 강박관념이 있어요. 검정도서는 국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민간이 만들기 때문에 민간이 갖는

자율성은 있지만, 국가 교육과정이 갖는 엄격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수학과 과학은 내용의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배우는 지식이니 오개념을 심어주는 건 큰 문제죠. 하지만 교수학습의 다양성을 교과서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기존 검정교과서가 친편일률적인 이유는 심사의 엄격함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1차 심사에 통과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2차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떨어지니, 집필자는 무조건 고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차로 분리돼 있던 본심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관·사회관·교육과정과의 정합성 등 교과서로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도서를 선별한 뒤, 해당 도서들에 한해서 수정 지시를 수정 권고로 완화하는 검정심사 제도의 개선은 집필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국가 교육과정 아래 엄격성은 분명히 존재해야 하지만, 이제는 심사의 관점도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데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집필의 자율성이 더 커지겠군요.

**이환철** 물론 검정 전환 첫 시작부터 자율성이 나타나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사는 교과서를 참고서로 활용하거나 좋은 요소를 발췌해 자기만의 자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국·검·인정 넘어 자유발행 도입**

**사회**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정책간담회가 지난 1월 31일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교육부는 자유발행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습니다.

**박창언** 교과서 자유발행 추진위원회는 일종의 자문기구로서 현행 국·검인정의 틀을 뛰어넘는 교과서 발행체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수, 교원, 교육 분야 연구기관의 교육전문가 총 20명의 위원이 지난해에 7차에 걸쳐 교과서 포럼을 진행하는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사실 자유발행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제화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건 근래에 와서죠. 우리는 교과서라는 지위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 등 표준화되고 규격화할 지식은 반영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자유발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92년 국정교과서에 대해 중학교 국어교사모임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다수 의견이 합헌으로 결정났지만, 국정교과서가 지니는 한계 때문에 반대 의견도 있었지요. 첫째, 국정제는 자유발행제와 비교해 학생들의 창의력 계발을 저해한다. 둘째, 상황 변화에 능동적 탄력적 대처를 곤란하게 한다. 셋째, 자유민주주의 기본에 모순되거나 역행한다. 넷째, 교사와 학생의 교재 선택권을 제한한다. 다섯째,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교육이 용이하다. 이 다섯 가지의 반대 의견이 자유발행제 장점이 됩니다.

**김차명** 최근 혁신교육이 시작되고 10년 동안 현장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과서에만 의존해 수업하면 다양한 수업 구현에 한계가 있고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해요. 선생님은 자신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수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교과서의 무게감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중심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중심으로 수업이 되어야죠. 각각의 현장 중심으로 가는 것, 이것이 자유발행제

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개편된 발행체제가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박은진** 교수학습의 자율권이 저해되는 교육 현장은 아이들의 삶에 크나큰 장애물로 작동합니다. 다만, 시대가 눈만 뜨면 바뀌는데, 점진적이란 말이 '기형' 또는 '퇴화'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학부모는 늘 소외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라고 하면서도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교육 담론도 결국 '기승전입시'거든요. 학부모가 교과서에 절대 권력을 부여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과서로 객관적 평가 이뤄지고, 수능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며, 이것이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틀을 깨려면 교과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전환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 교원 연수 등 인프라 구축 필요

**사회**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위원으로 몇 마디 보태자면, 교사의 전문성은 좋은 교과서를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됩니다. 특히, 자유발행제가 도입되면 교사의 집필 역량뿐만 아니라 좋은 교과서를 선정하는 안목도 중요한 역량이 되지요. 따라서 자유발행 대상 교과과의 교과서 선택과 활용 등에 대한 현직 교원의 연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교과서 선정과 활용 능력에 대한 예비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자유발행 교과서가 도입될 경우, 교과서 질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내에 질 관리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 교사들은 교과서를 선택할 때 교과서에 대한 정

보가 부족합니다. 또한 내용 오류 등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 잡을 수 있는 온라인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교과서를 사용한 후 평가 시스템을 같이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박창언** 교사들이 자의적으로 자료를 제작하는 등 전문성도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대로 자유발행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임덕연** 학교에서 잘 만들어진 검인정 교과서를 선택하는 기준과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시도별 교과서 축제나 교과서 박람회 같은 것을 열어 공급자와 수요자의 적극적인 정보교환과 환류 등을 도모하는 것도 시도해볼 만 하지요.

**김성근** 교과서 체제 개편의 가장 큰 흐름은 그간 혁신교육을 통한 현장에서의 변화들, 거꾸로 수업이나 배움의 공동체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굉장히 앞서가 있는데, 점진적 변화의 속도를 어느 정도 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로 행정적 업무 위주였던 시도교육청 교과서 담당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수학습의 다양한 부분들을 거버넌스로 구축하고, 협업을 강화해 나가야 하죠. 이렇듯 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은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요즘은 배움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육부나 교육청, 학교에서도 필사적으로 학부모와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모든 정책이 하드 엔딩이 된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대와 교대 교수님들도, 특히 이공계의 경우 지식산업의 변화들이 학교로 유입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교육학과 접목해 나가야 합니다. 자유발행제는 여러 가지 정책과 함께 연동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분권 자치의 일환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단지 권한의 이양뿐 아니라 국가 교육과정 체제를 지역, 학교, 개별 교사 나아가 아이들의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변화시키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라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지요. 거기에 발맞춰 교과서 정책도 현장에 있는 지식 체계를 훨씬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자유발행제 형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㉞

### 한눈에 보는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안

교육부는 지난 1월 3일 교과서의 다양성, 창의성 확대를 위한 발행체제 개선 필요에 따라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다.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교과서 획일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2년부터 초등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용도서 65책이 국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일부 전환된다. 또한, 1·2차로 분리된 본심사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등 검정도서 심사제도를 간소화하고, 고등학교 전문교과 I, II 284책과 학교장 개설과목부터 점진적으로 자유발행제를 도입해 추진한다.

제도 개선	<b>초등 국정의 검정 전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학, 사회, 과학 검정화</li> <li>· 간소화된 검정기준 적용</li> </ul>
	<b>검정심사제도 개선</b>
품질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심사 절차 간소화</li> <li>· 심사의견 현장 공유</li> </ul>
	<b>자유발행제 도입 추진</b>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장 개설과목(20~)</li> <li>· 전문교과 I, II(2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자문, 검토 등 교과서 개발 지원</li> <li>· 모니터링, 수정보완 등 사용 지원</li> <li>· 교과서 평가 환류를 통한 질 제고</li> <li>· 교과서 품질관리 협력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도서 개념 재정립</li> <li>· 자유발행제 법적 근거 마련</li> <li>· 심사 절차 등 규제 완화</li> <li>· 질 관리 강화</li> </ul>	

### [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로드맵(안) ]

<b>준비기</b>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위원회 구성, 포럼 개최</li> <li>· 자유발행제 정책연구 추진</li> <li>· 발행체제 개선 계획 수립</li> </ul>
<b>도입기</b> ('1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적용</li> <li>· 검정심사제도 개선 적용</li> <li>· 자유발행제 도입·적용</li> </ul>
<b>정착기</b>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 검정도서 적용</li> <li>· 차기 교육과정에서의 발행체제 다양화 검토</li> </ul>



#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공영형·협동조합형 유치원에서 답 찾다

##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의 방향성 제시 공영형·협동조합형 유치원 중심으로 재편 정부 역할과 시민 공동체 역할 일체화로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이 제안되고,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문제가 최근 3개월간 우리나라를 휩쓸었다. 이에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놓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이

에 강력하게 저항하며 폐원을 언급했다. 이러한 틈새에서 부모들은 사립 유치원과 기성 정치인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고, 협동조합 유치원이라도 운영하여 유아들의 학습권을 지속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교육부는 개혁을 늦추지 않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공공성의 기반을 확보하였고, 부모들의 노력으로 경기 화성 이음터에 들어설 협동조합 유치원이, 서울 노원 꿈동산 협동조합 유치원이 개원할 예정이다. 공영형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보다 확대될 예정으로, 국·공립 유치원 40% 확충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 ‘학교’로서 유치원의 정체성 확립

정부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방안(2018년 10월)을 통해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정책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치원이 ‘학교’이며 ‘공교육 기관’임을 재천명하며, 사립 유치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상 엄연히 ‘학교’이며, 앞으로 유치원은 유아가 다니는 ‘첫 학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에듀파인 도입, 학부모 운영위원회 기제 강화, 사립 사인 유치원의 법인화, 공영형 유치원 확대, 협동조합형 유치원 등의 사립 유치원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공립 40% 조기달성 정책과 함께 부모와 지역사회 공동체(共.common)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사립 유치원 정책을 살펴보면, 사립 유치원의 학교법인을 유도하고 공영형 유치원과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폐원을 희망하는 유치원은 매입 또는 용도변경을 통해 퇴로를 열어두고 있다. 또한 신규 유치원은 비영리법인이나 학교법인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제시되어 있다. 공영형 유치원 재정지원의 지속가능성이나 설립자의 자율적인 운영의 문제, 이사회 구성 등에서 다소 개선점이 발견되고는 있으나, 이러한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또한 정부가 계획하는 ‘부모협동형 유치원’은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를 둔 보호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유치원을 의미하며, 부모가 참여하는 새로운 유치원 모델을 도입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장점은 공동체성 확보, 양육 주체의 당사자성 확보(인권과 참여), 참여보육과 협력적 교사회, 유치원의 교육 내용 병행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 유아교육 공공성 재구조화, 협동조합형 유치원

유아교육 및 유치원 정책사를 돌아볼 때도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유아교육계에 주는 함의는 크다. 첫째,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도입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분리하고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고 교육을 서비스로 보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적인 교육 프레임에서 벗어나, 탈근대적인 실천적인 공동체를 유아학교 시스템에서 시도하는 하나의 ‘운동(movement)’이자, 유아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부모가 서비스를 받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는 인식 전환은 그 자체가 교육의 혁신이다.

둘째,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교육·급식·안전·회계 등에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유치원 운영 모델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공교육기관임에도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한 사립 유치원의 현실에서 ‘함께 키운다’, ‘함께 공유한다’의 개념은 제왕적 구조의 교육 리더십의 변화를 주고, 유치원 운영을 당사자들과 함께하여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영리법인도 있으나 수익창출에서의 영리의 개념이 아니며, 사유재산의 공공화의 특성을 포함한다.

셋째, 유아교육의 민주성을 높이며 정부의 역할(公. public)과 시민 공동체(共. common)의 역할을 일체화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의 의미를 재구조화하고 있다. public이나 common이나 결국 어원은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Koinonia)에서 나온 것으로 공교육 기관을 시민, 지역사회가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공동체 정부, 마을정부, 시민주권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의 뜻이 시민과 공동체의 뜻과 다르지 않게 하는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출현은 유치원 정책의 역사상 상당히 혁신적인 접근이다.

우리가 사립 유치원에 기대하는 것은 결국은 유치원이라는 학교 공동체 내에서의 민주주의의 실천이며, 공공성에 대한 요구이다.





### 공공성 강화는 실천과 희망의 문제

한국 유아교육 현장은 그동안 고유한 역동성을 내포해왔고, 현재 민주적인 방향으로 진보해나가고 있다. 우리가 사립 유치원에 기대하는 것은 결국은 유치원이라는 학교 공동체 내에서의 민주주의의 실천이며, 공공성에 대한 요구이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은

단순히 법 개정이나 이상적 모델 개발, 거대담론(meta-narrative), 당위적 구호만으로는 실천되기 어렵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해 당사자들이 공공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의사소통하고 때로는 투쟁하고, 공동의 목표와 관심을 공유해 나가는 실천적 과정을 통해서만 현실화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완전한 사회의 관념으로 접근하기보다 사실로서의 공동체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유치원 모델, 그리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모델은 지식 또는 이론적 모델의 문제가 아닌, 실천과 희망의 문제이다.

### 유치원 문화와 체질 개선 필요

추후 운영 모델과 공적 기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관혁신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단위 유치원의 조직 생태계에서 핵심 관계자들의 견제와 균형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유치원의 문화와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부모회, 교사회, 운영자 간의 평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치원 문화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교사 제도의 공공성도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국·공립에 준하는 교사봉급의 현실화와 투명한 교사 채용 시스템의 구축,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예비교사 교육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유치원 내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교사의 노조활동을 인정하는 것도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 유치원의 질 제고 정책도 필요하다.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부모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그리고 수익자부담이 적은 국·공립 유치원 증설에 대한 정책적 요구는 상당히 높다. 그러나 국·공립 유치원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 보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시간을 보다 유연화하며, 부모의 수요와 지역상황에 맞추어 통학버스를 운영하여 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학 중 급식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방과후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의 접근성과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부모가 사립이건 국·공립이건 가까운 곳에 손쉽게, 신뢰하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현장을 만드는 일이 결국 공공성 정책의 핵심일 것이다.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공형 사립 유치원 제도 도입 방안」, 2016, 육아정책연구소

「공공형 사립교육기관 운영모델에 관한 연구」, 2016, 서울시교육청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모델 다양화 및 현장도입방안 연구」, 2019, 충남교육청·교육부 외 다수



고려대학교 도서관

## 대학 교육과 연구 활동의 심장, ‘대학 도서관’ 무한 변신 시대

2차 대학 도서관진흥종합계획(‘19~’23) 발표  
연구지원금 10% 도서관 자료구입 의무화  
연구자 위한 학술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지원

과거 도서관하면 서가에 책이 빼곡하게 꽂혀있고, 조용히 책을 읽던 모습을 연상할 것이다. 열람실은 발소리를 죽인 채 드나들어야 했다. 하지만 요즘 대학 도서관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책을 읽고 학습하던 기존 ‘열람실’을 뛰어넘어 학생들이 토론이나 협업, 취업과 창업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교육과 학술연구 경쟁력 키우는 ‘대학 도서관’

교육부는 최근 대학의 교육과 학술연구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학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대학 도서관진흥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그림 참조>. 1차 종합계획(‘16~’18)이 대학 도서관의 자료를 확충하는 것에 주력하였다면 이번 2차 종합계획은 이용자 중심으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의 ‘열람실’ 이미지를 탈피하여 학생 중심의 맞춤형 학습 환경 및 연구를 위한 전문적 학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활동의 ‘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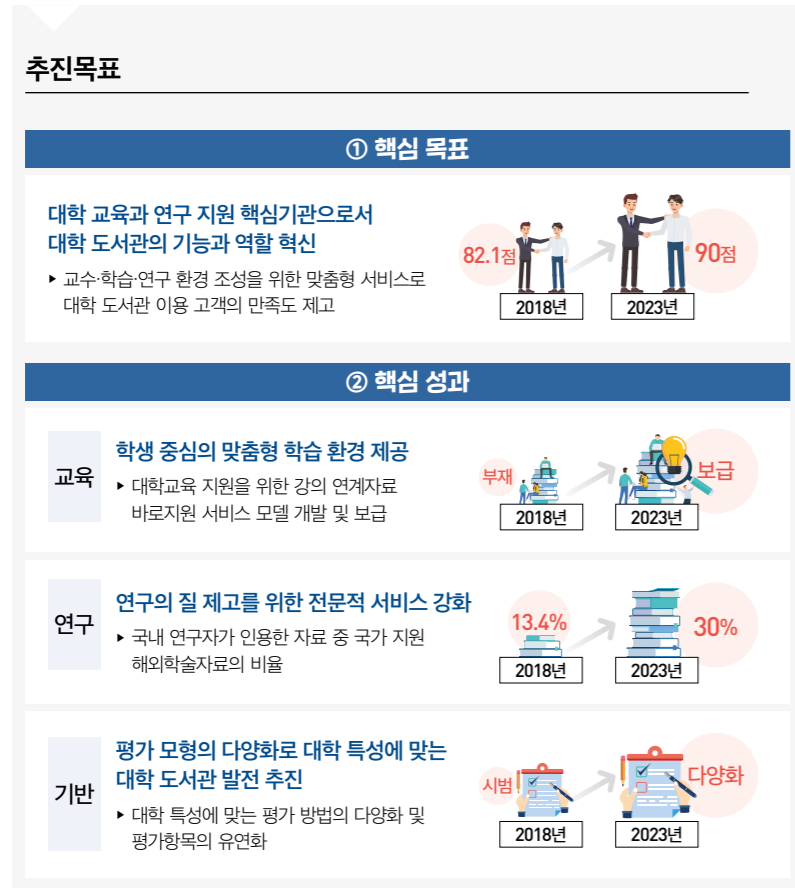




또한 건강한 학술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 과제물 및 소논문 작성법 교육, △ 연구자를 위한 연구 부정행위 범위, 표절 예방시스템 사용법 △ 학술지 등재정보 및 부실 학회

정보 제공 등 학습·연구윤리 교육 등도 실시함으로써 연구 윤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

[그림] 제2차 대학 도서관진흥종합계획(2019~2023) 추진방향



###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전문적 서비스 강화

2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대학 도서관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전자자료 제공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수요가 높은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사용권(라이선스)을 지원하여 대학이 공동으로 학술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의 학술연구지원사업비 예산 10% 이상은 전자저널 등 도서관 자료구입에 지원토록 하고, 향후 '의무적 지원'을 명문화하는 학술진흥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단계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즉, 연구 착수단계에서 선행연구 조사 지원을, 진행단계에서 참고문헌 작성 및 주제별 자료 제공을, 마무리 단계에서 학술지 투고전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 학생 중심의 맞춤형 학습 환경 제공

대학 도서관의 기본 기능인 도서대출 기능을 발전시켜 학생들의 수업과 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추진된다. 강의와 연관된 전공 및 참고 도서를 신속하게 구비하고, 최신 연구동향이나 학술뉴스, 학회 일정 등 전공별로 특화된 정보추천 서비스(큐레이션)를 제공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영어강의 번역을 제공하고 장애 대학생을 위한 도서 무료배달 등 학술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서비스도 확대된다.

또한 대학 도서관 공간을 학생들의 수요와 변화된 학습 환경에 맞추어 토론·협업 활동, 열린제작실(메이커 스페이스), 취·창업 활동 준비 공간 등으로 전환토록 할 계획이다.

대학 도서관을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고자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우선, 대학 도서관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가칭) 대학 도서관발전연구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대학 총장과 도서관장 등을 대상으로 대학 도서관 발전 포럼을 개최하여 대학 자체적으로 대학 도서관에 대한 투자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해 온 대학 도서관 평가는 2020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한다. 모든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해 왔던 평가지표를 대학유형이나 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②

### 대학 도서관 우수사례

**고려대학교**는 도서관 공간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 학생들이 제안한 다양한 시설들을 반영했다. 단순히 정보를 이용하고 소비하는 도서관의 개념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창의의 창업의 공간이자 학습·문화복합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고려대 도서관에는 책과 열림용 탁자 대신 1인 미디어를 생산하는 스튜디오와 동아리 공연장,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무대, 학생들이 바닥에 누워서 공부하고 휴식할 수 있는 마루침터, 원하는 대로 크기를 조정하는 공부방이 있다. 기존의 대학 도서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대학 도서관으로 'Browsing Zone'은 부스 & 라운지 형태로 되어 있어 학습과 휴식이 가능하며, 다양한 미디어 및 노트북 사용이 가능하다. 'Event Hall'은 강연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 휴식, 토론, 협업 등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공간이다.

**창원대학교**는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30여 종의 웹 D/B와 e-저널을 구독하고 있으며, 전자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년 6월경 전자정보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18년 2월 도서관 1층 로비에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의 기본 디지털 장비에서부터, UV프린터, 듀얼 히터 프레스, 선반 공작 장비, 가죽 공예 등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고 제품화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연세대학교**는 도서관(학술정보관) 1층(U-Lounge)에 700평 규모의 창의적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각종 테이블과 의자, 소파 등 안락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특징으로, 언제든지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아이디어 커먼스' 공간이다. 또 학술정보관에는 학술영상과 동문 스타트업 관련 영상, TED 등 엄선된 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미디어월이 있으며,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에는 아이디어를 직접 시연하기 위한 공간으로 3D 프린터, 스캐너, 각종 공작 도구를 비치하고 있다.

자료 제공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부속 도서관정책연구소





## 예당초 졸업생들 “꿈 씨앗을 심었어요”



### 졸업생들 꿈 담은 타임캡슐 봉인, 20년 후 개봉키로

예당초등학교(교장 구경석) 졸업생 8명은 지난 9일 열린 졸업식에서 자신의 꿈을 담은 타임캡슐을 교정에 묻었다. 타임캡슐 안에는 20년 후 자신에게 보내는 ‘꿈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은 20년 후 이곳에 모여 함께 타임캡슐을 개봉하기로 약속했다.

“선생님, 우리 정말 20년 뒤에 만나는 건가요?”  
 “서로 어떻게 연락하나요?”  
 “20년 동안 향아리 속에서 썩진 않을까요? 우리 앨범과 편지가 정말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예당초 6학년 학생들과 선생님이 올 한해 함께 한 ‘꿈을 찾아 떠나는 꿈 찾기 프로젝트’의 마지막 이벤트인 ‘우리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타임캡슐’ 행사에서는 연신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함께 기획하고 내용물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실현되지 많이 어색한 모양이다.  
 나를 알아가는 ‘실루엣 마음 자화상’부터 ‘꿈 명함 만들기’, 수학 여행과 연계한 ‘꿈 열차와 함께 떠나는 나의 진로 찾기’ 등 1년 동안 자신을 알고 꿈을 찾아가는 프로젝트 학습의 대미를 장식하는 타임캡슐 이벤트는 학생과 선생님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다.  
 타임캡슐에 자신이 공부한 것을 기록한 학습장을 넣은 김성걸, 진소망 학생은 “20년 뒤에 내가 넣은 공책을 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내가 이런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부끄

러울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의 나를 미래가 본다는 상상을 하니 신기하기도 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8학년도 교육장배 대회 등 군 내 티볼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연습과 경기 때 사용했던 공과 메달을 넣은 김진명, 권희민 학생은 “20년 뒤에는 우리가 한창 사회생활을 하며 꿈을 위한 도전을 펼쳐 나갈 때일 텐데,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할 것 같다. 그때 학교에 와서 타임캡슐에 있는 이 티볼 공과 우승 메달을 본다면 열심히 해서 성취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며 힘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예당초 70회 졸업식과 함께 진행된 이번 타임캡슐 봉인식은 졸업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실천하는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련됐다.

학생들은 타임캡슐 향아리에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와 소장품, 졸업앨범, 학교 문집 등을 넣었다. 타임캡슐 봉인 장소에는 ‘우리의 꿈, 여기에 보관하다’라는 내용의 기념표지석이 세워졌다. 표지석에는 개봉일 참석자 명단(졸업생 등)과 타임캡슐 개봉일시 등이 기록됐다.

이날 행사에서 김우년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는 무수히 많은 선택이 있을 것”이라며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길 바라며, 자신이 원하고 꿈꾸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미애 교감은 “우리 아이들이 꿈 씨앗을 타임캡슐에 심은 것이다. 20년 후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씨앗을 잘 가꿔 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 마지초, ‘엉뚱공작소’ 겨울방학 메이커 캠프 개최



마지초등학교는 1월 7일(월)부터 3일 동안 학생 학부모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내에 구축된 무한상상실인 ‘엉뚱공작소’에서 겨울방학 메이커 캠프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겨울방학 메이커 캠프는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창의융합능력을 신장시키고 실생활 문제 해결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 마지초에서 구축한 메이커 스페이스인 ‘엉뚱공작소’의 다양한 시설과 공구를 활용하여, 기초적인 목공 작업부터 LED 스탠드, 아크릴 조명 만들기, 커피 드리퍼, 모니터 받침대 제작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특히 학부모 및 학생들이 다양한 전동공구를 직접 다루면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최근 등장하고 있는 메이커 교육을 통한 실생활 문제 해결 경험의 기회를 갖을 수 있었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무섭게 느껴던 전동공구를 활용해서 직접 나무를 자르고 조립해서 모니터 받침대를 만들었더니, 뿌듯한 느낌과 함께 무엇이든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였다.

또한, 함께 참여한 한 학부모는 “학생들이 수박시간에 배운 도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설계도를 직접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 제품을 만드는 모습을 보니 학습과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마지초등학교 엉뚱공작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3D 프린터, 아두이노 등을 활용한 디지털 메이킹 활동과 여러 가지 전동공구를 활용한 아날로그 메이킹 활동이 함께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영재학교 학생들, 122개 영어교육 동영상 ‘번역 봉사’ 펼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교장 김현수)는 총 54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칸아카데미 번역 봉사단’이 커넥트 재단과 함께 총 122개 동영상을 번역하는 성과를 얻고 10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커넥트 재단은 네이버가 지난 2011년 설립한 비영리 재단으로 교육을 통해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칸아카데미 번역 봉사단’은 이 커넥트 재단과 함께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개인시간을 활용해 ‘칸아카데미’ 교육 동영상 자료에 우리말 자막을 만들어 붙이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이 번역한 칸아카데미 교육 동영상은 미국의 살만 칸이 ‘모든 곳의, 모든 이들을 위한 무료 교육’을 목표로 만든 비영리 재단인 ‘칸아카데미’에서 만든 교육 동영상이다. 세계적인 수준의 칸아카데미 교육 동영상을 한국 학생들이 언어장벽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영상에 적합한 한글 자막을 만드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칸아카데미 번역 봉사단’은 평소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가 추구하는 ‘나눔과 배움의 가치’를 직접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보여주었다.

윤종훈 학생(2학년)은 “관심 분야 영상을 하나씩 번역하고 멘토(KAIST 재학생)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과정 자체가 흥미로웠으며 번역활동을 통해 큰 성취감을 맛보았다.”고 말했다.

박혜준 학생(2학년)도 “심 없이 달리는 빠빠한 학교생활 속에서 잠시 ‘내 것’을 멈추고 ‘우리’를 생각할 기회를 가진 것이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칸아카데미의 한국어판 번역 활동을 주관하는 커넥트 재단 담당자는 “일반 학생들이 번역하기 어려운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상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참여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고 번역 실력이 뛰어나 해마다 좋은 결과물을 산출해 내고 있다.”고 평했다.



명호초, 말레이시아 충칭초 친구들과 국제교류학습



명호초등학교(교장 최석진) 국제교류학습 동아리학생 18명은 1월 6일(일) 오전 김해공항을 출발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환승 후 페낭에 도착해 본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말레이시아 SJKC 충칭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4박 6일간의 첫 번째 방문 국제교류학습(The 1st Cultural Exchange Program)을 실시하였다.

충칭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4명의 선생님들이 페낭 국제공항으로 마중 나와 본교 아이들을 인솔하였다. 홈스테이 가정 친구들을 다시 만나 반갑게 인사 나누고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지난 12월 한국을 방문했던 말레이시아 친구들을 다시 만난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선 연신 웃음꽃이 피어났다. 특히 환영식 때 충칭초등학교 합창단이 부른 도라지 타령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충칭초 친구들이 준비한 앙클롱(말레이시아 전통악기) 연주, 전통춤 등 축하 공연에 이어서 명호초 학생들은 그동안 연습한 단소연주, 영어구연동화 낭독, 한류 문화를 알리

는 K-pop 댄스, 해금 독주, 태권도 시범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24 seasons 드림 연주와 전통 악기 앙클롱 연주 등 문화 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페낭 전통 바틱, 엔토피아, 책록시, 와불상, 꼼딱타워 등 체험활동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역사와 문화, 생활 습관 등을 배우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다.

김나현(5학년) 학생은 “말레이시아 전통 복으로 아리랑을 연주했는데 악기를 흔드는 것만으로도 연주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노래가 완성되니 뿌듯했다.”며 “국제교류를 통해 말레이시아 친구들과 함께 하며 문화와 풍습을 체험할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세계를 품에 안고 국제적인 감각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며 머리로 생각하여 지금보다 높은 꿈을 갖고 멀지않은 미래에 세상의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을 명호인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㉞



# 새 학기, 꼭 챙겨야 할 일곱 가지

교사들은 새 학기를 맞을 때 고민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교사 못지않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새 학기를 기다립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할 텐데, 새로운 학년에서는 공부를 잘하면 좋겠어, 다양한 생각이 아이들 머리에서 꼬리를 물지요.

교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학급을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업무와 학년을 맡을 수 있을까, 이때 만큼 많은 걱정과 설렘이 공존하는 때가 또 있을까요. 이번 호 이야기가 이런 교사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새 학기를 맞으려면 촘촘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도 아니고 새 학기 허둥지둥 이것저것 뒤늦게 챙기느라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만큼 교사 본인 스타일에 맞게 챙기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여유 있고 편안하게 새 학기를 시작하면 좋겠지요.

## 학급 환경 준비 7가지

### 01 교실 청소하기



교실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교사도 학생도 즐겁게 생활합니다. 교실 곳곳에 쌓인 먼지를 깨끗하게 털어내고 새로운 교실을 만들어보세요.

### 02 신발장과 사물함에 번호표 붙이기



신발장과 사물함에 번호표를 붙여두면 새 학기 첫날 아이들이 헤매는 일 없이 자기 신발과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03 교사 개인 사물 챙기기



1) 벽시계 저는 교실 어디에서나 초침이 보일 정도로 큼직한 벽시계를 구입해서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교실을 옮길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벽시계를 거는 일이었지요. 교실에서 시간 약속을 아이들에게 잘 지키도록 지도하려면 아이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시계가 있어야 좋습니다.

2) 문구용품 가위, 풀, 30cm자, 50cm 자, 양면테이프, 12색 사인펜, 12색 매직, 보드마카, 보드마크 지우개, 투명테이프, 투명테이프용 물레방아, 고무자석, 라벨지, A4 색지, 건 타카, 스테이플러, 스테이플러 심, 색색 동그라미 스티커, 편지봉투, 칠판용 동그란 자석 등은 기본 문구용품입니다. 교사가 이 정도는 기본 문구용품으로 구비해둬야 합니다. 그래야 준비물이 없는 아이들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쓸 수도 있겠지요.

3) 스톱워치 칠판에 부착하는 스톱워치가 있으면 수업할 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4) 교실 뒷게시판 타이틀

저는 타이틀을 딱 한 번 잘 만들어두고 두고두고 썼습니다. 저희 반 타이틀은 "함께 어울려 숲이 되자"였습니다. 우리 교실을 정의하는 한 문장을 만들고 타이틀로 써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면 다양하고 좋은 문장이 많이 나올 겁니다.

### 04 급훈 정하기



급훈은 우리 교실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한 문장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실을 단 한 문장으로 만들어보세요. 저는 아이들과 학급 조회 시간에 매일 급훈을 외웠습니다. 급훈을 외우면서 우리가 꿈꾸는 교실을 함께 이야기 나눈다면 교실을 공동체로 세우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답니다.

### 05 교사용 지도서와 교육과정 미리 살펴보기



말은 학년이 정해지면 바로 교사용 지도서와 교육과정을 공부해야 합니다. 뒤늦게 3월에 시작하면 너무 늦거든요. 3월은 학기 초라 수업에 결손이 생길 때도 많습니다. 미리 수업을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는 수업 시수가 모자라는 경우도 생긴답니다. 바쁠 때일수록 교육과정을 꼭 숙지하고 핵심성취기준 등을 파악해서 수업을 놓치지 않고 잘 챙기는 게 좋습니다.

### 06 업무 살펴보기



업무가 많은 교사는 업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릴 겁니다. 말은 업무가 많을수록 학기 초에 마음이 조금 해지지 않도록 미리 전년도 업무계획과 공문을 읽어두세요. 대부분 학교 교육계획에는 부서별 업무의 대략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미리 챙겨서 읽어두면 학기 초에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 07 NEIS 기본 자료 챙기기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할 자료가 빠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NEIS는 바쁠 때 챙기려면 또 하나의 큰일이 돼버리니까요.

학기 초에는 어느 교사나 바쁩니다. 그렇지만 촘촘히 준비해두면 마음 편안하게 새 학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자잘한 일을 쌓아두면 나중에 피곤해져요. 시간을 내서 교실도 청소하고 아이들을 위해 작은 준비부터 시작해보세요. 선생님의 새 학기가 한결 여유 있을 겁니다.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2



# 전문 상담교사가 전하는 우리 아이 심리 화 잘 내는 성진

결핍하면 화를 내는 아이들, 이들은 학교에 와서도 친구들과 갈등을 빚는다.  
이런 아이는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 성진 문제

성진은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인데, 체격도 우량아인 데다 활발해서 학급을 끌고 돌아다닌다. 좀 이상한 아이가 있다 싶으면 따라다니며 성대모사도 하고 동작 흉내도 낸다. 그러면 아이들이 ‘와~’ 하고 웃고 박수를 친다. 하지만 그 아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씩씩거리거나 울음을 터뜨린다. 친한 아이들끼리 노는 걸 보면 꼭 들어가서 그 판을 독점하는 꼭질레옹(꼭 참견하는 아이를 이렇게 부름)인데,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화를 내면서 때린다. 대부분 성진에게 맞고 참았지만 경수만은 ‘나한테 이리지 마.’ 하고 맞섰다. 성진은 경수에게 종합격투기를 가르쳐 준다니 경수를 괴롭혔고, 경수는 울면서 담임선생님과 어머니께 성진을 말려달라고 부탁했다. 담임선생님이 돌을 불러서 타이르자, 일이 일단락되었다. 아니, 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성진은 경수에게 더 화를 내면서 티 나지 않게 구박했다. 경수는 그때마다 담임선생님께 말했지만, 어언간 선생님께 지나치게 예민한 학생으로 취급받았고, 경수 엄마도 매번 전화로 서비스를 요구하는 극성 엄마로 보여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셨다. 게다가 성진 엄마는 ‘저 집 엄마가 좀 잘나가는 데다 아들 성적까지 좋으니 눈에 보이는 게 없나? 사실 우리 아들도 맛있다던데.’ 하면서 성진만 나쁜 아이 취급받는 걸 원하지 않으셨다.

우물우물 시간이 흐르는 사이 일이 커졌다. 참다못한 경수 엄마가 A4 용지에 육하원칙에 따라 매 맞은 내용을 20항목 이상 적고, 매 맞은 다른 아이들의 부모 서명까지 받은 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면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용서 없는 처벌을 할 것과 민사재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한 날, 선생님이 경수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만류했지만 그녀는 손을 뿌리치면서 ‘진작 해주셨어야죠!’ 했다.

### 성진 진단

상담선생님이 증계에 나서기로 했다. 이런 일은 첫째 부모님들이 마음을 곱게 쓰시도록 해야 되고, 둘째 원인을 파악해서 처리하고, 셋째 부모님께 아이 키우는 법을 조언해 드려야 한다. 성진 어머니와 얘기를 나눠보니, 아빠는 지방에 계시고



엄마는 일 나가시고 그 때문에 성진은 할빠(아빠 역할하시는 할아버지)가 키우셨다. 엄마는 버릇없는 성진에게 화를 냈고, 할빠는 ‘애들은 놔둬도 다 알아서 크다.’며 며느리에게 화를 냈고, 주말마다 집에 오는 아빠는 엄마에게 화를 냈고, 엄마는 성진에게 더 화를 냈다. 성진이 자주 하는 말은 ‘엄마, 또 화났어?’ 이었다. 아이고, 분노가 가득 찬 가족이다.

### 성진 지도

상담선생님이 경수 엄마에게 ‘상대를 처벌하는 게 목적인지, 아드님을 편안하게 하는 게 목적인지’ 물었다. 후자라는 대답을 듣고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렸다. 그에 따라 경수 엄마가 성진 엄마를 만나서 ‘학폭 재판을 열자고 해서 죄송해요. 과거의 잘못은 따지지 말고 당분간 두 아이들을 서로 떼어놓을 수는 없을까요?’ 하고 부탁했다. 서로 합의가 되자 경수는 행복해졌고, 오직 성진이 친구들에게 자주 화내고 강요하는 문제만 남았다.

상담선생님은 성진에게 ‘경수를 괴롭히지 않기’를 강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친한 남자에 2명과 여자에 1명과 더 사이좋게 놀까?’를 상담했다. 경수는 좋아하는 아이들과 놀 때도 화를 잘 냈는데, 그때마다 상담선생님이 ‘친구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는 연습을 시켰고, 엄마도 화내며 꾸중하기보다 ‘우리 경수 화가 많이 났네.’ 하면서 가라앉힐 시간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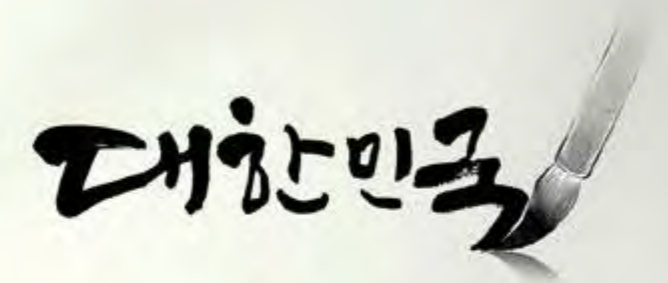
얼마 후 경수는 ‘내가 욕을 하면 친구 마음이 속상해요.’ ‘내가 친구를 밀면 친구가 기분 나빠요.’ 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다른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결핍하면 친구들에게 화내면서 고집 피우던 버릇이 많이 줄었다.

친구 흉내를 내는 버릇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담임선생님이 계기교육을 하시면서 누군가 친구를 놀리면 일제히 ‘하지 마! 친구야!’ 하고 외치라고 가르치셨는데, 경수가 또 그러다가 친구들에게서 박수 대신 이 합창을 듣자 머쓱하면서 그 버릇이 푹 떨어졌다고. ㉠



# 대한민국의 ‘민국’은 어디서 왔는가

##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국호 탄생 비화



『영조실록』 1766년 4월 1일 기사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생각하건대 내가 40년을 왕위에 임하여 ... 한마음을 이미 민국(民國)에 바쳤다.”

여기서 ‘민국’은 ‘민’과 ‘국’을 따로 떼어 ‘백성과 나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조선 후기의 기록들에는 민국이라는 말이 지속해서 등장한다. 이를 두고 왕조 체제 내에서 나라의 주인이 ‘민(民)’이라는 의식이 진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우리 역사에서 자생적으로 근대적인 국민국가 의식이 싹터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1897년에 제정된 ‘대한제국(大韓帝國)’이라는 국호가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때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바뀐 것은 이 같은 내재적 발전 과정의 귀결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

### 1919년 임시정부 수립과 국호 ‘대한민국’

일반적으로 임시정부의 국호에 민국이라는 국체 칭호를 붙인 것은 1911년 신해혁명의 결과 탄생한 중화민국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다. 1910년 4월 10일 밤 10시 국내와 만주, 시베리아, 미국, 일본 등지에서 활동하던 스물아홉 명의 독립운동가가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租界)에 있는 현순(玄榭)의 집에 모였다. 역사는 이것을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제1회 회의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는 당연히 국호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논의도 있었다. 신석우(申錫雨)가 대한민국으로 하자고 동의했고 이영근(李漢根)이 재청했다. 그러자 여운형(呂運亨)이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은 이미 우리가 쓰고 있던 국호로서 그 대한 때에 우리는 망했다. 일본에게 합병되어버린 망한 나라 대한의 국호를 우리가 지금 그대로 부른다는 것은 감정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을 쓰자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했다. “일본에게 빼앗긴 국호이니 일본으로부터 다시 찾아 독립했다는 의미를 살려야 하고 또 중국이 혁명 후에 새롭고 혁신적인 뜻으로 ‘민국’을 쓰고 있으니 이를 따라 대한민국이라 하는 것이 좋다.”<sup>1)</sup>

여기 등장하는 중국의 민국은 1912년 쑨원이 중국 최초의 공화국으로 창건한 ‘중화민국(中華民國)’을

가리킨다. 앞서 살펴본 영조의 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동양의 전통 유교 왕조에서도 민국이라는 말은 쓰이고 있었다. 그러나 쑨원이 창건한 민국은 영어 republic(리퍼블릭)의 번역어였다. republic은 본래 ‘공공의 일’을 뜻하는 라틴어 res publica에서 유래한 말이다. 고대 로마에서 귀족과 시민이 왕을 쫓아내고 원로원과 민회를 통해 국가를 운영해 나간 정치 체제를 가리킨다. 근대 유럽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 절대왕정을 폐기하자 republic은 전제 군주국인 왕국에 대비해 시민이 통치하는 근대적 정치 체제를 뜻하게 되었다. republic은 유럽을 넘어 중화민국, 대한민국 등 세계 곳곳에 퍼져 나갔다.

### 3.1운동 정신을 잇는 ‘민주공화국’

republic을 번역한 말로는 민국 말고도 ‘공화국(共和國)’이 있었다. ‘공화(共和)’는 본래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나오는 말이다. 주(周)의 폭군 여왕(厲王)이 쫓겨나고 소공과 주공이라는 두 재상이 왕 없이 통치하던 시기를 가리킨다. republic을 공화로 처음 번역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1949년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공산당은 국호를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이라고 선포하면서 이를 ‘새로운 중화민국’이라고 선전했다. 중화민국과 차별화하기 위해 뜻은 다르지 않지만 민국 대신 공화국을 사용한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republic의 두 가지 번역어를 반복 사용하면서 귀족 같은 특권층의 공화국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화국임을 강조한 셈이다.

조선 왕조에서도 민국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국호에 사용하고 있는 민국과 온전히 같은 뜻으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바뀌는 과정은 일제의 침략을 물리치는 독립운동과 국민이 주인 되는 새 나라를 세우는 혁명운동이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그러한 흐름을 결정적인 것으로 만든 사건이 3.1운동이었다. 특권층이나 지식인에 국한되지 않는 동포 전체가 들고일어나 자신들의 나라를 요구하며 만세를 불렀기 때문이다. 3.1운동을 ‘3.1혁명’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

1) 呂運弘, 『夢陽 呂運亨』(서울: 靑夏閣, 1967), p.41.





# 역사의 주름이 살아 움직이는 땅, 부여

한반도 굽이굽이 서린 사연을 넘어다보며 선택한 2월의 종착지는 부여다. 갓 새해를 맞아들인 2019년의 두 번째 여행지로는 비단결 강이 토지를 감아 흐르는 곳, 백제 문화가 깃들어 있는 터전, 강과 돌이 사연을 전해오는 그 땅이 더없이 좋은 곳이라. 백제의 제일 큰 강이라는 뜻의 백마강을 찾아 부여로 간다.



1

## 백제 모습을 그대로 복원한 백제문화단지



완공까지 장장 17년이 걸린 백제문화단지로 향한다. 백제 왕궁인 사비궁과 사찰인 능사, 개국 초기 궁전인 위례성과 고분 공원, 백제 숲과 제향루 등으로 꾸며놓은 이곳은 작은 백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백제의 모습을 정교하게 복원해 놓고 있다. 삼

국시대 왕궁 모습을 최초로 재현해 놓았다는 사비궁을 지나 능사로 간다.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절로 현재는 절터로만 남아있다. 능산리 사지를 바탕으로 복원한 절이 능사 5층 목탑, 대웅전, 자호당 등을 재현, 웅장함과 섬세함으로 그 시절 백제를 눈앞에 되살려낸다. 사극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젖어 위례성을 찾는다. 한성백제 시절의 성인 위례성은 온조왕이 고구려에서 남하해 자리 잡아 만든 곳이다. 움집, 고상 가옥, 망루 등을 재현해 둔 이 성은 색색의 단청으로 장식된 사비궁과는 확연히 다른 소담한 멋을 자랑하고 있다. 움집 지붕과 토담을 벗 삼아 걸으며 백제의 옛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화려함과 소박함, 거대함과 미세함, 섬세함과 단아함이 버무려져 오묘한 색을 빚어낸다. 토기 하나도 허투루 만들지 않았던 나라 백제의 생활문화가 깃든 마을의 풍경과 백제역사문화관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나와 다음 목적지로 발을 옮긴다.

## 사비시대 123년의 백제 도읍지, 부소산성

문화단지를 지나 백마강교를 건넌다. 백제보 길을 거쳐 부소산성으로 간다. 부소산은 해발 백 미터 남짓 되는 나지막한 산으로 한쪽은 시가지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백마강을 마주하고 있다. 백제어로 소나무를 의미하는 부소가 많다 하

1. 백제문화단지 사비성
2. 백제 금관
3. 한성백제 시절을 복원한 위례성



3

여 부소산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이 산에는 영일루, 삼층사, 사자루, 낙화암, 고란사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위기에 처한 백제를 위해 목숨을 내던진 백제의 세 충신 성충, 홍수, 계백을 모신 삼층사 앞에 선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야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을 터, 영정을 앞에 두고 2019년의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염원해 본다. 고즈넉한 숲길을 걸어 반월루에 이른다. 누각에 오르니 백마강에 안긴 부여가 한눈에 들어온다. 무채색 한복 치마 위에 손을 가지런히 얹고 앉은 정한 여인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그 위로 담박한 위례성 풍경이 겹쳐 보인다. 이 청초함이 부여의 민얼굴이라.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피해 부소산으로 몸을 피한 후 끝내 죽음을 택한 삼 천 궁녀들의 충절을 기리는 사당, 궁녀사로 간다. 몸을 내던지는 것 외에는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궁녀들의 아픈 사연과 오래전 세상을 떠난 그들을 기리는 애도의 마음에 가슴이 일렁인다. 먼저 떠난 이들을 위해 내미는 따뜻한 손이 있기에 생은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닐까. 삼천궁녀가 꽃이 되어 떨어졌다는 사연이 깃들어 있는 곳, 낙화암으로 향한다. 세상 어디에도 아름답고 기쁜 죽음은 없을 터, 질곡 있는 삶과 가슴 아린 죽음에 이야기를 더해 의미를 입힌 것은 사람이다. 깎아지른 바위 위





에서 백마강을 내려다보는 두 눈에 서리는 것은 꽃잎이 아닌 눈물인 것은 채 피어보지도 못한 채 벼랑 끝에서 몸을 던진 낫모를 이들의 생이 애달파서, 무고한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까닭 모를 전쟁이 한스러워서이리라. 고개 숙여 궁녀들의 죽음을 애도한 후 도착한 곳은 고란사다. 이곳은 비명(非命)에 간 이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세운 사찰이다. 고란수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인 후 법당에 들어선다. 어제 세상을 등진 이들이 편안히 잠들기를, 치열하게 이 순간을 마주하고 있는 이들의 오늘이 평안하기를, 찬란한 내일의 해를 맞을 누군가의 하루가 복되기를 기도하며 향에 불을 붙인다.

**석탑의 계보를 잇는 정림사지 오층석탑**

정림사지 오층석탑이 있는 정림사지 박물관으로 간다. 정림사는 백제 사비 도읍기에 만들어진 사찰로 현재는 강당과 탑, 연지만 남아있다. 이곳은 1942년 발굴조사에서 ‘태평 8년 무진 정림사 대장당초’라 적힌 명문기 출토로 정림사로 알려지게 되었다. 정림사지 중심에 자리 잡은 오층석탑은 목조탑에서 빛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을 사용해 만든 탑으로 백제 특유의 석탑 양식을 보여준다. 조형미는 물론 기술적으로도 상당한 연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탑은 삼국시대 석탑 연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연지에서 중문을 지나 탑 앞에 이른다. 탑 상부



로 갈수록 높이가 줄어드는 구조에서 특유의 안정감이 배어 난다. 기단에 새겨진 우주와 탕주를 올려다본다. 시공이 미지의 어딘가로 확장되리라도 하는 듯, 형언할 수 없는 아련함에 눈앞이 아득해진다. 하늘에 감싸 안기는 듯한 기분에 젖어 탑을 한 바퀴 휘두른다. 치맛단을 감싸 쥐듯 탑을 올려다본 후 금당을 거쳐 강당으로 들어간다. 형체만 겨우 남은 정림사지 석불좌상을 앞, 석상에서 바느질 자국을 찾아볼 수 없는 검푸른 한복 치맛자락을 본다. 이 석상이 여느 불상보다 깊은 울림을 남기는 것은 사물에 불과했을 돌에 불법(佛法)으로 만물을 감싼다는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리라.

강당을 돌아 나와 정림사지 박물관으로 들어간다. 범어(梵語) 만(卍)자 형태의 이 박물관에서는 백제 불교 문화와 정림사를 주제로 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정림사지 석탑과 불상, 정림사지에서 출토된 유물, 백제 불상, 백제 탑, 동아시아 고대 불교 관련 내용을 꽤 자세하게 풀어놓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전시물은 정림사를 복원한 조형물과 탑 건립을 과정을 재현한 것으로 박물관 밖의 정림사지를 전시실 안으로 끌어온 것 같은 생생함을 전해준다. 2층에서는 ‘부여의 영정’과 ‘부여의 금석문화재 탁본’을 주제로 한 ‘부여 예찬’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성왕, 무왕을 비롯한 백제 왕의 영정은 물론 계백 장군과 단군 화상, 금석문화재 탁본까지 덩으로 눈에 담고 박물관을 나온다.

**국내 최고(最古)의 인공연못, 궁남지**

부여 여행 종착지는 궁남지다. 궁남지는 백제 무왕이 궁성 남쪽에 못을 만든 후 버드나무와 인공 섬 등으로 장식한 인공연못이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궁원지(宮苑池)인 궁남지는 백제의 조경기술과 당시의 도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일본서기』에서는 궁남지의 조경기술이 일본 원지 조경의 원류가 되었다고 전하기도 한다. 중국 전설에 등장하는 삼신산 중 방장 선산을 본 따 만들었다는 섬을 그려보며 나무다리를 건너 포룡정으로 간다. 잎 진 느티나무와 꽃 진 연꽃 대를 고스란히 비춰내는 차디찬 못 위로 누렇게 붉은 노을이 스며든다. 하늘은 어둠에 잠겨가고 노을이 발간 치맛자락이 되어 대지에 펼쳐진다. 노을을 배경으로 이별을 앞두고 서서 신동엽 시인의 시 ‘눈동자’를 나지막이 읊어본다. 묻지 말고 이대로 보내 주옵소서 잊어버리고만 싶은 눈동자여. 말 곳 하면, 잘못 꿈 깨어져 버릴 깨끗한 얼굴. 눈물 감추우며 제발



이대로 돌아가게 못 본 척해 주소서. 내 목숨 다 주고도 떠나기 싫은 눈동자여. 백마강이 풀어 흐르는 땅 곳곳에 깃든 역사가 멋스러운 시간의 주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곳, 그 주름이 시시각각 모습을 달리하는 곳, 그리하여 오늘의 이 닿음이 역사의 안 페이지로 남겨지게 하는 곳, 부여에서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간다. ㉞

4. 부소산성 반월루 6. 정림사지를 복원한 모형 8. 정림사지 오층석탑  
5. 백제 기와 7.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9. 궁남지





NEWS BRIEFING

happyedu.moe.go.kr 2019.02

교육적 해결 지원하는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추진



교육부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와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더욱 전문적이고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면서,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현행 학교폭력 대응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확충을 지원한다. 현행 자치위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더 많이 참여하고, 은폐·축소 시도가 확인된 경우 가중 조치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적 관여를 통해 학생 간의 바람직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장치를 두고, 교육적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도 마련한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은 교내선도형 조치인 경우 기재를 유보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재심으로 인한 가해학생 전·퇴학 조치 지연 시 피해학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퇴학조치와 더불어 학급교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등도 추진한다.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미리 챙겨 돌봄공백 해소



교육부는 2019학년도 신학기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고 예산을 지원하여 초등돌봄교실 총 1,400실을 확충함에 따라 작년보다 2만여 명이 증가한 약 28만 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신학기에 1,200여 실을 증설·운영하고, 학교가 돌봄교실 신청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을돌봄과 연계하는 등 돌봄수요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발표



교육부는 1월 31일에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안전하고 유익한 현장실습을 제공한다는 기존 현장실습제도의 토대 하에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참여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장려책을 확대하여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늘리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은 더 내실 있게 보호하며, 현장실습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도 등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교육부는 1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업계고 혁신을 통해 고졸취업을 확대하고, 고졸재직자의 후학습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학과개편, 실무중심교육으로의 체질 개선으로 직업계고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산업체 재직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을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하여 모든 직업계고에 1인 이상 배치하고, 국가직 공무원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과 지방직 공무원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고졸채용 인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 전담조직 구성·운영 등 교육신뢰회복에 본격 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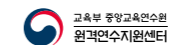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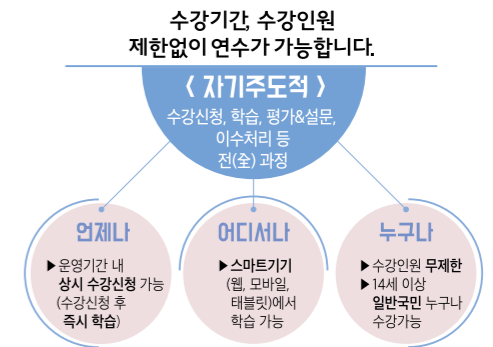


교육부는 1월 14일에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방안 협의, 학사 부정 등과 관련된 대학들의 실태조사 내용 검토 후 결과를 발표하였다. 추진단 발족은 교육의 공공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민 신뢰회복의 출발점으로 먼저 교육부부터 자기 혁신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현장의 참여 및 소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추진단은 부총리(단장)가 직접 주재하고 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8명이 참여하는 상시 점검회의로 운영된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2019년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 안내

- 운영기간**  
2019. 1. 28.(월) 00:00 ~ 12. 20.(금) 24:00
- 수강신청 및 학습**  
중앙교육연수원홈페이지(www.neti.go.kr)  
통합교육연수(모바일 앱, 안드로이드·IOS)
- 교육대상**  
교원, 일반직공무원, 각급 학교 직원, 만 14세 이상 일반국민 등
- 개설과정 수 : 200개**  
교수학습 72개, 생활교육 51개, 진로·상담 9개, 자기계발 41개, 정책이해 18개, 교직실무 9개
- 학습유의 사항**  
· 수강신청기간  
2019. 1. 28.(월) 00:00 ~ 12. 13.(금) 24:00  
· 1일 최대 학습량  
1~9차시(100%), 10~19차시(50%), 20차시 이상 과정(30%)
- 강좌 문의**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053-980-6900)





지난호 독자 리뷰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취업과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체는 제2의 학교라는 말이 와 닿았다. 우리 학생들은 현장에서 근로자가 아닌 보호 받고 배워야 할 학생들이다. 따라서 현장실습은 '일이 아닌 학습'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글에서 제시한 현장실습 산업체와 전공 교과 연계,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담당하는 부서 외에도 교사가 산업체에서 같이 실습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모니터단\_신민정

4차산업의 기로에 서 있는 시점에서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보인다. 너무나 당연한 행복임에도 입시 위주의 교육에 익숙하다 보니 새롭고 신선한 느낌이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이웃인 중국에서도 4차산업의 준비가 오래전부터 진행되었고, 그 발전 현황도 우리나라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앞서 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드론으로 택배 배달, 무인 식당 서빙 기계 등등. 인천하이텍고등학교처럼 더는 학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서는 청소년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교육과정이 많아졌으면 한다. 모니터단\_이혜진

지적장애 자녀를 키우는 어느 학부모의 글을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다. 옆에 있던 아내도 읽어 보고 감동이라고 전했다.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라울이의 선생님들이 그대로 실천해 주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큰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사회의 다양성, 다문화에 배척하지 않고 품어 안을 수 있는 멋진 어른으로 자란다. 선생님들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하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가는 라울이와 어머님께 항상 응원의 목소리를 전한다. 모니터단\_윤영성

ENENT

2월호 <정책 간담회>를 읽고 교과서를 키워드로  
특독 튀는 재미난 3행시를 지어주세요.

다음달 5일까지  
행복한 교육(<https://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지난호  
당첨자**  
김은미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59  
이서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49  
이정숙 서울 관악구 대학10길

발행일 2019년 2월 15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한상신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최성부  
사무관 박대선 주무관 최민석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대변인실 323호

편집실  
기자 이순이 한주희  
사진 김경수 이대원 최원석  
디자인 홍지화  
마케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

# ‘교육지원 한눈에’에서 내게 꼭 맞는 ‘교육지원’ 혜택 한번에 찾아보세요!

- 약 60여 개의 교육복지·지원 정책이 **한곳에**
- 나만의 맞춤형 교육지원 정보를 **한눈에**
- 신청시기 및 정책내용 변경 알림도 **한번에**

교육지원 한눈에

<http://eduone.moe.go.kr>

